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불규칙 활용 실현  
양상 연구

-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

張 禕 寧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2023년 6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불규칙활용 실현  
양상 연구  
-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張 禕 寧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지도교수 배 영 환

張 禕 寧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최 대 희 

위 원 신 우 봉 

위 원 배 영 환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Chinese  
Learners' Irregular Use of Korean Language  
- 'ㅛ, ㅜ, ㅜ' focusing on irregular use-

Yi-Ning Zhang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n Bae )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202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Young-Hwan Bae, Prof. of Korean language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초록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2. 선행 연구 ..... 2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7

### II. 기본적인 논의

- 1.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해석 ..... 14
  - 1.1. 오류의 정의 ..... 14
  - 1.2. 오류 분석 가설과 오류 유형 ..... 15
- 2. 불규칙 활용과 기저형 ..... 16
  - 2.1. 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종류 ..... 16
  - 2.2. 기저형의 이해 ..... 23
- 3. 한국어 교재분석
  - 3.1. 한국에서 사용 중인 교재 ..... 26
  - 3.2. 중국에서 사용 중인 교재 ..... 29

### III. 불규칙 활용 오류 양상 분석 및 지도 방안

- 1. 오류 양상 분석
  - 1.1. 한국어 능력 등급별 오류 양상 ..... 34
  - 1.2. 불규칙 유형별 오류 양상 ..... 36
    - 1.2.1. ‘ㅂ’ 불규칙 활용 ..... 36
    - 1.2.2. ‘ㅅ’ 불규칙 활용 ..... 42
    - 1.2.3. ‘ㄷ’ 불규칙 활용 ..... 46
- 2. 오류 발생원인 및 학습 지도 방안
  - 2.1. 오류 발생원인 ..... 52
    - 2.1.1. ‘ㅂ’ 불규칙 활용 ..... 53
    - 2.1.2. ‘ㅅ’ 불규칙 활용 ..... 53
    - 2.1.3. ‘ㄷ’ 불규칙 활용 ..... 54
  - 2.2. 학습 지도 방안 <교수-학습모형> ..... 54
    - 2.2.1. ‘ㅂ’ 불규칙 활용 ..... 55

2.2.2. ‘ㅅ’ 불규칙 활용 .....	59
2.2.3. ‘ㄷ’ 불규칙 활용 .....	63
<b>IV. 결론</b> .....	68
<b>&lt;참고 문헌&gt;</b> .....	69
<b>【부록】</b> .....	73
1. 조사하기 전에 준비 활동	
2. 설문조사 질문지	
3. 표 목차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불규칙 활용 실현 양상 연구  
-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

장의녕

제주대학교 한국어 교육 협동과정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규칙한 활용 부분에서 각각의 발음규칙의 오류를 분석하여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 부분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찾아내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발음 부분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주제는 한국어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간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한국어 용언의 활용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어 용언의 형태 변동은 규칙 변동과 불규칙 변동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변동 모두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중요한 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대화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각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관한 어휘를 제시하여 각각의 어휘에 나타나는 오류 비율을 확인한다. 이후 중국 학습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발음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안에 참고 및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분리하여 설명하였는데, 불규칙 활용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정의의 기준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불규칙 활용의 설명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어휘를 사

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한국어 등급별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용언의 불규칙 활용의 사용실태를 실제 조사하여 각 활용 규칙의 구체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비율을 얻었으며, 조사결과 ‘ㅂ’, ‘ㅅ’, ‘ㄷ’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 학습에서 비교적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이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오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생활 속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ㅂ,ㄷ,ㅅ’ 불규칙 활용의 세 가지 교육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용어: 용언 활용,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ㅅ’ 불규칙, ‘ㄷ’ 불규칙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불규칙 활용 오류 양상을 살피고 적절한 학습 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외국어 학습의 최종적인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목표어를 정확히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간섭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가운데 발음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허웅·김선정, 2009:15).

모국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목표어와 모국어의 언어 특성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연습만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법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정주리, 2018:50), 목표어의 문법적 특징을 먼저 익혀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의 문법을 매우 어려워해서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적절한 문법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언어 구조가 다르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조사와 어미가 매우 복잡한 언어이고, 이 조사나 어미들이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나 어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중국어는 표의문자로 음절 하나하나가 단어로써 의미를 갖는다. 중국어는 형태적으로는 고립어에 속하며 형태변화가 복잡하지 않다. 문법적인 기능은 한국어와 달리 주로 어순에 의해 실현되고, 의미적인 부분은 성조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즉, 한국어는 활용에 의해 어휘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지만, 중국어는 어순과 성조에 의해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어휘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차이 때문에 중국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활용 양상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한국어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에 비해 불규칙 활용은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며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류 양상을 교정받지 못하고 중·고급 단계로 넘어가면 오류 양상이 화석화되어 문장을 제대로 쓰거나 읽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오류 유형에 알맞은 교육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활용 중에서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을 연구 범위로 하여,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학습 중인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한 실제 오류 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한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불규칙 용언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안으로 이에 대한 학습지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ㅂ, ㅅ, ㄷ’ 불규칙 활용 관련 연구는 많지만, 이들 발음 변화 과정을 기저형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저형을 이용해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본적인 논의로 오류에 대한 개념 정리와 불규칙 활용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한국 교재와 중국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적절한 교육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2. 선행 연구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가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어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어학계와 한국어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안미애·이미향(2016:34)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학문 범주로 인정된 이후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편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수는 매우 많다. 특히 발음과 관련된 논문이 많다. 이는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음소 문자이지만 음절 단위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양국의 음운 현상과 관련한 대조분석이 주 관심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음운체계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모국어 발음

습관에 따른 방해로 한국어 발음에 잦은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볼 연구들은 먼저 중국인 학습자를 상대로 하는 발음 오류 양상을 살피는 논문과 국어의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살피고 있는 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들이다.

석주연(2002)에서는 불규칙 용언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특정 환경에서 변이 규칙을 주지시키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실험과 학습자 자기관찰 결과를 통해서 변이 규칙을 하나하나 기억해 발화할 때마다 적용하여 음성형을 도출시키는 교수 방식보다 두 가지 어간형에 대한 기억을 전제로 모음 어미와 자음 어미의 환경에 따라 음성형을 선택하여 도출시키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하였다.

정효주·김영주(2011)에서는 국제교육원 1급 학습자 6명과 TOPIK 5급 이상인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중화 현상, 비음화, 경음화, 격음화, 유음화, 연음현상과 관련된 발음 실현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초급과 고급에 해당하는 두 그룹 모두 비음화 현상에서 높은 발음 오류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왕비염(2014)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서 나타난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서 불규칙 활용의 기술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후에 불규칙 활용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불규칙 활용 오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로 설문조사의 형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불규칙 활용할 때 나타난 오류의 양상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가 많이 나온 원인을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경·백경미(2015)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을 관찰하고 음운 환경과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한국어 음운 규칙 적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하나의 음운 변동 규칙 내에서 그 환경에 따라 정반응 비율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급 단계에서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음운 규칙의 미습득으로 인한 오류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3년 이상인 고급 단계 학습자들에게서도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진경(2016)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불규칙한 용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어 불규칙 활용의 교수방법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대학에서 사용되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어 불규칙 용어의 교재 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불규칙 용어의 개념과 종류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기존 교수법과 학습법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외국인 학습자가 많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고, 불규칙 용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불규칙 용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서 불규칙한 용어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민하(2017)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20명과 한국인 4명의 발화를 비교하여 음운, 음성학적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파찰음의 평음과 경음을 구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급이 경음의 오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중국어의 무기 파찰음이 한국어의 경음보다는 평음과 가까운 음향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급은 초급보다 격음의 음운론적인 오류율은 낮지만 음성적 오류율이 높고 화자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 고급의 음성적 오류는 모국어의 영향에 의해 화석화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경희(2019)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종성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참가, 대치, 누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계획된 단어나 문장, 설문 위주의 조사를 벗어나 실제적인 오류를 조사하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발화 상태에서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연음이나 경음화는 실현하면서 종성만 누락 하는 ‘부분 누락’과 같은 어휘임에도 오류를 실현하기도 하고 바르게 발음하기도 하는 등, 종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예시가 여러 건 발견되었음을 살피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체언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조사나 형태소 등 인접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휘와 통으로 묶어서 발음 교육해야 하며, 용언은 기본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형의 발음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백경미(2019)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자유로운 발화에 나타난 용언 활용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특성에 알맞은 용언 활용 규칙의 기술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100명의 자유 발화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학습자가 보인 용언 활용 오류를 살펴본 결과 불규칙 활용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것은 ‘여’ 불규칙이며, 다음으로 ‘ㅂ’ 불규칙, ‘ㄷ’ 불규칙, ‘르’ 불규칙, ‘ㅎ’ 불규칙, ‘스’ 불규칙 등의 빈도순으로 오류가 관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임현열(2022)는 어문 규정과 문법 교과서가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ㅂ 불규칙 활용’의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조명하여 향후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ㅂ 불규칙 활용’에 관해 <우리말샘>을 전수 분석하여, ‘ㅂ 말씀’ 용언들의 활용 양상을 계량적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한 동사와 형용사의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다면 외국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ㅂ 규칙 활용’과 ‘ㅂ 불규칙 활용’을 가려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음은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과 관련한 연구 논문들이다.

용언 활용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불규칙 용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불규칙 용언이란 용언을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sup>1)</sup>. 즉 용언이 활용할 때 일반적인 음운 규칙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불규칙한 음운 규칙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활용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최현배(1937) <우리말본><sup>2)</sup>에서는 한국어 문법에서의 활용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을 ‘ㄷ, 르, ㅂ, 스, 으, 우, 르, 러, 여, 거라, 너라, ㅎ’ 12가지 유형으로 나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5년 출간된 학교 문법은 음운론 생산의 투입으로 ‘ㄷ 탈락’, ‘으 탈락’이라는 두 개의 활용은 현재 규칙 활용 범위에 포함됐고, 나머지 10개 유형은 불규칙 활용 범위에 남겼지만, 국립국어원(2005)에

1) 서술어의 어간이 뒤의 어미와 결합되어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예측 가능한 기본적인 형태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규칙 활용 또는 정칙활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형태변화가 일어나면 불규칙 활용 또는 변칙활용이라고 한다.

2) 《우리말본》은 총 1,283쪽이며, 당시 한국어의 문법을 이론적으로 풀어 쓰고 있다. 연구 분야는 ‘소리갈, 씨갈, 월갈’은 각각 음운, 품사, 문장 등으로 나눈다. 국어의 모든 현상을 매우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규범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전통 문법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의 불규칙 활용은 ‘ㅅ 불규칙, ㄷ 불규칙, ㅂ 불규칙, ㄹ 불규칙, ㅕ 불규칙, ㄹ 불규칙, ㅎ 불규칙’ 이 7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대규(2000)에서는 불규칙 동사 학습의 내적적인 조건과 외적적인 조건을 고찰하여 불규칙 동사 학습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불규칙 활용 동사를 가르치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불규칙 동사의 개념과 각 유형의 분류 기준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관련된 용언들을 ‘하다, 오다, 모으다, 푸다, 이르다, 고르다, 살다, 깨닫다, 낫다, 파랗다, 돕다, 있다’ 12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그리고 불규칙 동사를 배울 때 미치는 내적 영향과 외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어의 불규칙한 활용을 배우기 전에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접미사에 대한 선행 학습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조남민(2002)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언의 활용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용언의 활용 규칙에 일정한 순서를 설정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및 한국어 어학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불규칙 용언의 실제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각 유형에서 나오는 오류 양상을 조사하여 활용 유형별 사용빈도를 근거로 각 용언의 사용빈도에 대해 순위를 제시하였다.

이정민(2008)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출판한 한국어 문법교재에서 불규칙 활용의 정의와 분류방식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또한, 초급 한국어 교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규칙 용언의 형태와 불규칙 용언에 대한 설명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희(2009)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교재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불규칙한 활용에 관한 기술 방식을 고찰하고 있는데,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불규칙 활용 규칙에 관한 기술이 교재들 사이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수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남기심·고영근(2011)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어미의 불규칙과 어간의 불규칙, 또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활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ㅂ’, ‘ㄷ’, ‘ㅅ’, ‘ㄹ’, ‘우’, ‘여’와 ‘ㄹ’, ‘거라’, ‘너라’, ‘오’, ‘ㅎ’ 총 11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중에 ‘ㄷ’,

스, 르, 우, ㅂ'은 어간의 불규칙 활용으로 규정하고, '러, 여, 너라, 오, 거라'는 어미의 불규칙 활용으로 규정하였으며, 'ㅎ'은 어미와 어간의 불규칙 활용으로 규정하였다.

이상 기존의 논의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나 음운 현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발음의 오류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발음 오류 등을 직접 조사해보고 이를 유형화해서 오류의 원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3.1. 연구 대상

중국인 학습자가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의 3부분으로 나누고 총 60명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가 이들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여부로도 분류해보았다. 이 연구 조사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1>, <표2>와 같다.

<표1>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한국어 사용능력(단위, 명)

성별	초급	중급	고급	합계
남	10	7	7	24
여	8	12	16	36
합계	18	19	23	60

위의 <표1>를 통해 실험에 참가한 인원은 총 60명으로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24명, 여학생이 36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이중 초급이 18명, 중

급이 19명, 고급이 23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로 참가 인원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수치가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줄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정확도 여부에는 학습 기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이 학업만 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정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학교 수업 중에 교정을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발음을 아르바이트 중에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로부터 교정을 받을 기회가 많다는 점과 아르바이트 중에는 한국인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발음을 인식하고 수정하려고 노력을 할 수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국어 사용능력과 아르바이트 종사 여부가 발음 오류에 미치는 영향도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어 능력 등급은 낮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발음에서 오류가 낮을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한국어 능력 등급이 높은 학생이 오히려 발음 오류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2>는 조사 대상자들의 아르바이트 참가 여부에 대한 분석이다.

<표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과 아르바이트 참가 여부

등급	성별	한국어 능력 등급	한국어 학습 기간	아르바이트 참가여부
초급	남	제주대 어학당1급(4명)	0-6개월	X
	남	제주대 어학당2급 (3명)	0-6개월	X
	남	제주대 어학당3급(3명)	1년 미만	X
	여	제주대 어학당1급(1명)	0-6개월	X
	여	제주대 어학당 2급(3명)	0-6개월	X
	여	제주대 어학당 3급(4명)	1년 미만	X
중급	남	TOPIK 3급(3명)	2-3년	X
	남	TOPIK 4급(1명)	3년	X
	남	TOPIK 4급(3명)	3-4년	O



고급	여	TOPIK 3급(2명)	1-2년	X
	여	TOPIK 3급(2명)	2년	O
	여	TOPIK 4급(8명)	2-5년	O
	남	TOPIK 5급(3명)	4-5년	X
	남	TOPIK 5급(1명)	5-6년	O
	남	TOPIK 6급(3명)	6-8년	O
	여	TOPIK 5급(7명)	4-6년	O
	여	TOPIK 6급(9명)	5-10년	O

위의 <표2>를 보면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서 남녀 모두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을수록 한국어 능력 등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능력 등급이 높다는 것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에 대한 정보를 ‘성별’, ‘한국어 등급별’, ‘한국 체류 기간별’, ‘학습 과정별’로 종합해보면 아래의 <표3>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3> 조사 대상자 60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조사 대상	성별		한국어 등급			한국어 체류 기간			학습 과정		
	남	여	초급	중급	고급	0-2년	2-5년	5년 이상	어학당 학습자	학부생	대학원생
인원수(명)	24	36	18	19	23	24	21	15	18	18	24
비율(%)	40	60	30	32	38	40	35	25	30	30	40

###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총 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피험자들의 성별, 나이,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능력 수준(TOPIK 기준으로) 등이 각각 다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오는 ‘ㄷ, ㅂ, ㅅ’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을 대조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누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난이도 방면에도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자들에게 준비한 설문지 자료를 나눠준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에 사용하는 어휘들은 각각 사용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단어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통해 중국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불규칙 활용에서 오류가 많은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오류 빈도가 높은 영역을 선별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 유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 60명을 상대로 아래의 <표4>, <표5>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하기 전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4> 한국어 사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질문 내용	인원수(명)	
	예	아니요
1. 내 생각을 한국어로 정확히 <b>말하기</b> 가 어렵다	37	23
2.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히 <b>듣기</b> 가 어렵다	12	48
3. 책의 내용을 정확히 <b>읽고</b> 이해하기가 어렵다	11	49
4. 표기법에 맞게 정확히 <b>쓰기</b> 가 어렵다.	27	33

위의 <표4>에서 실시한 사전 인터뷰는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말하기>쓰기>듣기>읽기’ 순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5>는 조사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5>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듣기	발음	문법	어휘	기타	합계
인원수(명)	10	20	15	13	2	60명
비율(%)	17	33	25	22	3	100%

위의 <표5>에 따르면 60명 피험자 중에 발음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20명이 있고 33% 차지한 것을 보인다. 문법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피험자가 15명이 있고 25%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어휘력과 청력에 어려움을 느낀 피험자는 각각 13명과 10명으로 전체의 22%, 17%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은 ‘발음>문법>어휘>듣기’ 순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방성원(2000)의 조사에서 문법을 포함해 네 가지 언어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학습자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문법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수가 13으로, 듣기(13), 말하기(13)와 함께 쓰기(4), 읽기(1)보다 높게 나타났음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숙(2003:132)에서는 문법에 대한 요구는 한국어와 언어 구조가 다른 학습자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설문지조사에서는 질문지를 등급대로 나누지 않았다.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불규칙 활용은 초급 단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이 이미 불규칙 활용에 대해 학습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지, 아직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불규칙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실제 조사하기 전에 피험자에게 먼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개념에 대해 아래의 <표6>과 같은 설명지를 통

해 간략히 설명해주었다. 특히 불규칙 활용 중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아래의 (1)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ㄱ. ‘ㅂ’ 불규칙 활용: 어간 말음이 ㅂ+모음 어미/으 -> ‘ㅂ’>우/오  
 ㄴ. ‘ㅅ’ 불규칙 활용: 어간 말음이 ㅅ+모음 어미/으 -> ‘ㅅ’> ㅅ  
 ㄷ. ‘ㄷ’ 불규칙 활용: 어간 말음이 ㄷ+모음 어미/으 -> ‘ㄷ’>르

<표6> 불규칙 활용의 형태 변화표

구분	예시	-을 거예요?	-지요?	-아/어서	-(으)니까
ㅂ불규칙 활용	덥다	더울 거예요	덥지요	더워서	더우니까
ㅅ불규칙 활용	낫다	낫을 거예요	낫지요	나아서	나으니까
ㄷ불규칙 활용	걷다	걸을 거예요	걸지요	걸어서	걸으니까

피험자들이 용언의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 때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을 다 제시하였다. 설문지에서 사용한 어휘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언을 선정하였으며, 규칙 동사의 ‘묻다’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는 아니지만, 불규칙 동사의 ‘묻다’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하였다. 질문지에 사용할 규칙 용언으로는 ‘입다, 잡다, 뽑다, 씹다, 받다, 달다, 민다, 묻다, 웃다, 씻다, 벗다’를 골랐고, 불규칙 용언으로는 ‘춡다, 가깝다, 돕다, 굽다, 잇다, 붓다, 짓다, 낫다, 듣다, 걷다, 묻다, 깨닫다’를 선별하였다<sup>3)</sup>.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7> 조사 대상 불규칙 활용 용언

구분	예
ㅂ 불규칙	춡다, 가깝다, 돕다, 굽다
ㅅ 불규칙	잇다, 붓다, 짓다, 낫다

3) 한글맞춤법 제18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참고함.

ㄷ 불규칙	듣다, 걷다, 묻다, 깨닫다
-------	-----------------

앞에 언급한 용언들은 자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 모음 어미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을 완성시킨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표8>과 같다.

<표8> 설문조사 질문지 구성 예시

아래의 예와 같이 문제의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_____ (듣다)어요 ->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요.	
빈칸 채우기	<ㅂ불규칙> 밖에서 _____ (춡다)으니까 많이 입으세요.
	<ㅅ불규칙> 나 이제 괜찮아, 병이 이미 다 _____ (낫다)았/었어.
	<ㄷ불규칙>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_____ (묻다)어봐요.

## II. 기본적 논의

### 1.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해석

#### 1.1. 오류의 정의

오류(誤謬, error)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思考)의 내용과 대상(對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思惟) 판단을 말한다. 즉 바른 형태를 인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오류에 대한 정의를 Kleppin(2007:30)은 오류 기준을 ‘상황에 적절한가의 여부’, ‘정확성’, ‘수업에 종속된 기준들’,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세웠다.

이정희(2003:66)는 ‘오류 분석 가설’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보는 관점은 외국어 교수 이론에서처럼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방과 수정을 목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를 중간 언어 혹은 하나의 과도기적 체계라고 본다면 ‘오류’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류가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오두은(1996:12)은 오류란 모국어 화자인 성인 문법으로부터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그것은 학습자의 중간 언어 능력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학습자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가진 언어체계의 그 무엇을 밝혀내기 위해 이러한 오류를 관찰, 분석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류 분석이라고 불리는 학습자의 오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오류’와 ‘실수’의 개념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수’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근거로 한다면, ‘오류’가 학습자의 불충분한 이해로 생기는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개념인 ‘실수’는 말 그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의 경우 이것을 오류로 볼 것인지 실수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문장을 제대로 읽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발화 양상을 살핍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 1.2. 오류분석 가설과 오류 유형

학습자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오류분석 가설은 모든 가능한 원인에서 기인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와 같은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류분석 가설은 모국어와 학습 목표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 간 전이’에 집중하여 외국어 학습을 방해하는 면만을 연구함으로써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던 대조분석 가설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신진우, 2018:11). 이러한 오류분석은 주로 학습자의 발화 자료를 수집하여 그 양상을 분류하게 되는데, Corder(1981)는 오류 분류를 위한 범주로 ‘누락, 첨가, 선택, 순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오류 양상 중 누락은 필요한 요소가 빠져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첨가는 불필요한 요소가 덧붙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선택은 비슷한 범주나 혹은 전혀 다른 범주의 요소로 바꿔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순서는 목표어의 어순에 어긋나게 써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신진우, 2018:11).

강희숙(2009: 251)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오류의 발생원인을 밝히려는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다음의 <표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9> 오류 발생의 원인<sup>4)</sup>(강희숙, 2009:251)

연구 성과	오류 발생의 원인	비고
Richard (1971)	(1) 간접 (2) 언어 내적 오류 (3) 발달 오류	
Selinker (1974)	(1) 모국어 (2) 교육과정 (3)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4)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 (5)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	
Corder (1974)	(1) 언어 간 전이 (2) 언어 내적 전이 (3)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것	
Kleppin (1998)	(1) 모국어 혹은 여타 언어/외국어의 영향 (2) 외국어 자체 내의 어떤 요소의 영향 (3) 의사소통 전략의 영향 (4) 학습 전략의 영향 (5) 외국어 수업의 어떤 요소의 영향	

	⑥ 개인적인 요소의 영향 ⑦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영향	
조철현 외 (2002)	(1) 모국어 (2) 학습 과정 (3) 교과서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방법 (4) 외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학습자의 태도 (5) 목표 언어 규칙의 과잉 적용	
이정희 (2003)	(1) 모국어 (2) 목표어 규칙의 확대 적용 (3) 교육 과정	

위의 <표9>의 오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모국어’가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모국어는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을 수행할 시에 ‘간섭’에 의해 모국어의 체계나 특성이 목표어에 반영됨으로써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모국어에 없는 요소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배재적 간섭, 모국어에 있는 어떤 요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일컬어 침입적 간섭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국어의 간섭 이외에도 목표어의 규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목표어 자체가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목표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과잉 일반화, 규칙화, 단순화 등의 유형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신진우, 2018:13).

## 2. 불규칙 활용과 기저형

### 2.1. 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종류

#### 2.1.1. 불규칙 활용의 개념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것을 활용이라고 하고, 어간과 어미의 활용에 의해 형성된 결합형은 활용형이라 한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기 때문에 곡용형이나 활용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김봉국, 2021: 83).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적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배주채(2000: 163-164)에서는 활용형의 형태를 어간의 형태와 어미의 형태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를 불규칙 활용 또는 변칙활용이라 하였고, 후자의 경우를 규칙 활용 또는 정칙활용이라고

4) 신지우(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음(화) 오류 유형 연구>를 참고하였다.



하였다.

한편, 한글맞춤법 제18항에서는 불규칙 활용 전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2)와 같다.

(2) 한글맞춤법 제18항

<p>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li><li>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li><li>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li><li>4. 어간의 끝 ‘ㄱ, ㅡ’가 줄어질 적</li><li>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li><li>6. 어간의 끝 ‘ㅂ’이 ‘ㅃ’로 바뀔 적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li><li>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li><li>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li><li>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li></ol>
---

위의 (1)에 제시하고 있는 규정들 가운데, 2번은 ‘ㅅ 불규칙’에 해당하고, 5번은 ‘ㄷ 불규칙’, 6번은 ‘ㅂ 불규칙’에 관한 규정이다.

2.1.2. 불규칙 활용의 종류

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불규칙, 어미의 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함께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배주채(2000)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불규칙 활용의 유형을 어간이 불규칙 적인 것과 어미가 불규칙 적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어간이 불규칙인 경우

‘ㄷ’불규칙 활용: 듣고, 들으면, 들어 cf. 믿고, 믿으면, 믿어

- ‘ㅂ’불규칙 활용: 밉고, 미우면, 미워 cf. 집고, 집으면, 집어
- ‘ㅅ’불규칙 활용: 짓고, 지으면, 지어 cf. 벗고, 벗으면, 벗어
- ‘ㄹ’불규칙 활용: 흐르고 흐르면, 흘러 cf. 치르고, 치르면, 치러
- ‘우’불규칙 활용: 푸고, 푸면, 퍼 cf. 주고 주면, 주어

ㄴ. 어미가 불규칙인 경우

- ‘여’불규칙 활용: 하고, 하면, 하여 cf. 가고, 가면, 가
- ‘러’불규칙 활용: 이르고, 이르면, 이르러(至) cf. 이르고, 이르면, 일러(早)
- ‘거라’불규칙 활용: 가고, 가면, 가, 가거라 cf. 사고, 사면, 사, 사라
- ‘너라’불규칙 활용: 오고, 오면, 와, 오너라 cf. 보고, 보면, 보아, 보아라

ㄷ.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인 경우

- ‘ㅎ’불규칙: 파랗고, 파라면, 파래 cf. 좋고, 좋으면, 좋아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18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어휘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10> 받침이 ‘ㅂ, ㅅ, ㄷ’인 용언들<sup>5)</sup>

종류	구분	예
ㅂ 받침	규칙 활용	(추위에 손이) 꺾다, (허리가) 꺾다, 꼬집다, (손을) 꺾다, 다잡다, 비집다, 뽑다, 수줍다, 씹다, 엮다, 잡다, 접다, 좁다, 집다, 헤집다
	불규칙 활용	가깝다, 가볍다, 간지럽다, 괴롭다, (고기를) 굽다, 깎다, 노엽다, 눅다, 더럽다, 덥다, 맵다, 메스껍다, 무겁다, 미덥다, 밉다, 사납다, 서럽다, 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ㅅ 받침	규칙 활용	벗다, 빗다, 빼앗다, 솟다, 씻다, 웃다
	불규칙 활용	긋다, 낫다, 붓다, 잇다, 잣다, 젓다, 짓다
ㄷ 받침	규칙 활용	(빨래를) 걷다, 곧다, 굳다, (문을) 닫다, 돈다, 뜯다, (땅에) 묻다, 민다, 받다, 번다, 뺀다
	불규칙 활용	(걸음을) 걷다, 긴다, 깨닫다, 눅다, 닫다(빨리 뛰다), 듣다, (물음을) 묻다, 붙다, 싣다, 일컫다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용언의 활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은 오류를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용언<sup>6)</sup>의 불규칙 활용이다. 전통적으로 불규칙 활용이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한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비자동적 교체 현상을 말한다(남기심 외, 2019:121). 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찾아보면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 ‘돕다’가 ‘도와’로, ‘짓다’가 ‘지어’로, ‘하다’가 ‘하여’로 되는 것 따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돕다’가 ‘도와’로 변하는 것은 ‘ㅂ 불규칙’에 해당하며, ‘짓다’가 ‘지어’로 변하는 것은 ‘ㅅ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듣다’가 ‘들어’로 변하는 것을 ‘ㄷ 불규칙 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는 불규칙 활용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이고, 최근에는 이들을 용언이 활용할 때 실현되는 이형태 가운데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잡을 수 없는 경우로 보기로 한다. 즉, ‘굽다’의 경우 ‘굽고, 구우니, 구워’ 등과 같은 활용에서 ‘굽-’이나 ‘구우-’의 두 교체형은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설정할 수 없다(김성규, 2000:124)는 견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불규칙 활용 중에서 ‘ㅂ, ㅅ, ㄷ’ 불규칙을 연구 범위로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의 공통점은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지 않고 모음 어미나 ‘으’계열 어미와 결합할 때에만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이다(박솔지, 2014:48).

### 2.1.3. ‘ㅂ’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은 어간 말음이 ‘ㅂ’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가 모음 어미 또는 ‘으’ 계열 어미가 결합할 때 ‘ㅂ’이 ‘우’ 또는 ‘오’로 변한다. 그리고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우’ 또는 ‘오’가 어미 ‘-어/아’와 결합하여 ‘워’ 또는 ‘와’로 변한다.

아래의 (4)는 ‘ㅂ 불규칙 활용’은 어간 말음 ‘ㅂ’이 자음 어미 앞에서는 ‘ㅂ’으

5) 한글맞춤법 제18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참고함.

6) 카잉수문(2013),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불규칙 활용 교육 방안 -'ㅂ','ㄷ','ㅅ'불규칙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우’로 변하는 활용 사례이다.

(4) ㄱ. 눅다: 눅고, 눅지 (어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ㄴ. 눅다: 누워, 누우니 (어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위의 (4)과 같이 ‘ㅂ 불규칙 활용’은 자음 어미가 올 때는 ‘눅-’으로 실현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누우-’로 실현되어 ‘ㅂ’과 ‘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5)과 같이 ‘돕-, 곱-’ 등은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면 ‘-와’로 실현된다.

(5) 돕다: 돕고 -도우니 -도와

곱다: 곱고 -고우니 -고와

아래의 <표11>는 ‘ㅂ’ 불규칙 활용의 사례들이다.

<표11> ‘ㅂ’ 불규칙 활용 사례

	-아/어	-(으)니	-았/었다
깎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밉다	미워	미우미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6) ㄱ. 굽다[燒]: 구워, 구우니

ㄴ. 굽다[曲]: 굽어, 굽으니

위(6)의 ‘굽다’는 동음이의어로 ‘(고기)를 굽다’의 (6ㄱ)은 어간의 말음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우’로 나타나는 불규칙 활용을 하지만, ‘(허리)가 굽다’의 (6ㄴ)은 어간 말음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음이의어들은 학습자들에게 주의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 2.1.4. ‘ㅅ’ 불규칙 활용

‘ㅅ’ 불규칙 활용은 어간 말음이 ‘ㅅ’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다음에 모음 어미 또는 ‘으’계열 어미가 결합할 때 ‘ㅅ’이 탈락하는 것이다.

- (7) ㄱ. 짓다[作]: 짓고[질꼬], 지어, 지어도, 지은  
 ㄴ. 웃다[笑]: 웃고[울꼬], 웃어, 웃어도, 웃은

위 (7)에서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짓-’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간 형태 ‘짓-’과 ‘지-’는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이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되는 것은 모든 ‘ㅅ’ 말음 용언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처럼 ‘웃다’의 경우에는 모음 앞에서도 이형태의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의 <표12>은 ‘ㅅ’ 불규칙 활용 사례들이다.

<표12> ‘ㅅ’ 불규칙 활용 사례

	-아/어	-(으)니	-았/었다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붓다	부어	부으니	부었다

### 2.1.5. ‘ㄷ’ 불규칙 활용

‘ㄷ’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ㄷ’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 다음에 모음 어미 또는 ‘으’ 계열 어미가 결합할 때 ‘ㄷ’이 ‘ㄹ’로 변하는 것이다. ‘ㄷ’ 불규칙 활용은 동사에만 나타나며 형용사 중에는 해당하는 어휘가 없다. 외국인 학습자가 ‘ㄷ’ 불규칙 활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래의 (8)에서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도 있기 때문이다.

- (8) 걷다[收] : 걷고, 걸어, 걸으니, 걸었다  
 달다[閉] : 달고, 달아, 달으니, 달았다  
 받다[受] : 받고, 받아, 받으니, 받았다  
 묻다[蓋] : 묻고, 물어, 물으니, 물었다

위의 (8)에 있는 ‘ㄷ’ 말음 용언들은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든 용언으로 시작하든 어간 말음 ‘ㄷ’이 그대로 실현되는 규칙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 반면에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은 아래 <표13>과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 말음 ‘ㄷ’이 ‘ㄹ’로 변하기도 한다.

<표13> ‘ㄷ’ 불규칙 활용 사례

	-고	-아/어	-(으)니	-았/었다
걷다[步]	걷고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듣고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묻고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실다[載]	실고	실어	실으니	실었다

위의 <표13>에서 확인되듯이 어간 말음 ‘ㄷ’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ㄷ’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ㄹ’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묻다[問]

와 ‘묻다[蓋]’는 의미는 다르지만,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을 하는지 불규칙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혼동할 소지가 있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은 동음이의어는 학습자들에게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 2.2. 기저형의 이해

### 2.2.1. 기저형의 이해

기저형은 한 형태소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대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형태소는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때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에 대한 음운론적인 설명을 위해 대표형을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표형을 기저형이라고 한다(이진호, 20220:239).

기저형과 대립되는 어휘로 표면형이 있다. 표면형이란 화자들이 실제로 발음하거나 듣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은 모두 표면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저형과 표면형은 음운규칙과 관련이 있으며, 기저형에 여러 가지 음운규칙을 적용하면 표면형을 밝힐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기저형) → → → → (표면형)                  ↑↑                  (음운규칙)             </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head> <tr> <th style="border: none;">기저형</th> <th style="border: none;">적용된 음운규칙</th> <th style="border: none;">표면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order: none;">발+ 이</td> <td style="border: none;">→ 구개음화 →</td> <td style="border: none;">[바치]</td> </tr> <tr> <td style="border: none;">은</td> <td style="border: none;">→ 없음 →</td> <td style="border: none;">[바튼]</td> </tr> <tr> <td style="border: none;">도</td> <td style="border: none;">→ 경음화 →</td> <td style="border: none;">[밭또]</td> </tr> <tr> <td style="border: none;">만</td> <td style="border: none;">→ 비음동화 →</td> <td style="border: none;">[반만]</td> </tr> </tbody> </table>	기저형	적용된 음운규칙	표면형	발+ 이	→ 구개음화 →	[바치]	은	→ 없음 →	[바튼]	도	→ 경음화 →	[밭또]	만	→ 비음동화 →	[반만]
기저형	적용된 음운규칙	표면형														
발+ 이	→ 구개음화 →	[바치]														
은	→ 없음 →	[바튼]														
도	→ 경음화 →	[밭또]														
만	→ 비음동화 →	[반만]														

한 형태소의 기저형은 여러 이형태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기저형을 정할 때는 먼저 이형태들을 정리한 후 각각의 이형태를 기저형이라고 가정하여 나머지 이형태의 실현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이진호, 2020:241).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발음들은 ‘ㅌ’ 받침의 ‘밭’일 때 전부 실현이 가능하다. 이때의 기저형은 ‘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2.2.2. 기저형의 유형

기저형의 항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복수의 기저형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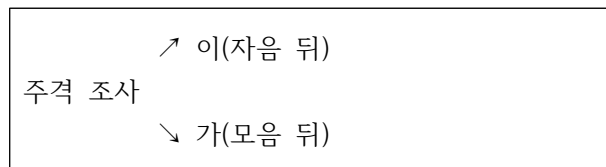
단일 기저형이란 어떤 형태소의 기저형이 하나인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즉 기저형을 하나만 설정해도 해당 형태소가 이형태로 실현되는 모든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 단수 기저형을 설정한다(이진호, 2020:248).

- (9) ① [먹꼬], [멍는], [머그니], [머거] → [먹-]
- ② [달고], [단는], [다드니], [다다] → [달-]

복수 기저형은 말 그대로 기저형이 둘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하나의 기저형에 음운규칙을 적용해서는 형태소의 모든 이형태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복수기저형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복수 기저형은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경우에 필요하다. 불규칙적인 교체에 의한 이형태들은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형태 각각을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백방, 2012:11).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면 한 형태소의 기저형이 둘 이상이 되므로 각각의 기저형이 언제 나타나는지 출현 환경을 명시해주어야 한다(이진호, 2020:249).

한 형태소의 복수 기저형으로 ‘A’와 ‘B’가 설정되었다면 ‘A’가 나타나는 환경과 ‘B’가 나타나는 환경을 정확히 밝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형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주격 조사의 복수 기저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 한국어 교재분석

한국어 교재분석은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 설명하는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선택 기준은 초급 단계로 한정하였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 중에서 제주대학교 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어휘에 대해서 교사가 필요에 따라 추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어학당 교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세종 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 그리고 그 밖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구성하여 각각에서 불규칙 활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1>은 교재분석에 사용된 교재들의 표지이다.

<그림1> 교재 표지

한국 내 교재 표지			
중국 내 교재 표지			

교재의 선택 기준은 초급 단계로 한정하였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 중에서 제주대학교 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어휘에 대해서 교사가 필요에 따라 추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어학당 교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세종 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 그리고 그 밖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구성하여 각각에서 불규칙 활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3.1. 한국에서 사용 중인 교재

(10) 『세종 한국어 어휘·표현과 문법』 1A, 2A<sup>7)</sup>

구분	설명	예
ㅂ 불규칙 활용	<p><b>의미:</b> ‘ㅂ’ 받침이 있는 몇몇 동사나 형용사 뒤에 모음이 오면 ‘ㅂ&gt;우’로 바뀌는 현상. 모든 ‘ㅂ’ 받침 동사와 형용사가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p> <p><b>형태:</b> 받침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ㅂ&gt;우’로 바뀐다. ‘우 + 어요’는 ‘워요’가 된다. ‘입다, 잡다, 줍다’ 등은 ‘ㅂ’ 받침이 있지만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다.</p>	<p>요즘 날씨가 더워요. 한국은 겨울 날씨가 추워요. 공부가 쉬워요. 책이 어려워요.</p>
ㄷ 불규칙 활 용	『세종 한국어 어휘·표현과 문법』 이 교재에서는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 없음	
ㅅ 불규칙 활 용	<p><b>의미:</b> 받침 ‘ㅅ’으로 끝나는 동사, 형용사 중 ‘붓다, 짓다, 찢다, 낫다’ 등 일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부어요, 지어요, 저어요, 나아요’와 같이 ‘ㅅ’이 탈락하는데, 이를 ‘ㅅ 불규칙’이라고 한다. 단, ‘씻다, 웃다, 벗다’ 등은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규칙 활용을 한다.</p>	<p>고양이 이름을 나비라고 지을 거예요. 생강차를 마시면 감기가 빨리 나을 거예요. 우유에 꿀을 넣고 저었어요. 어제 많이 울어서 눈이 부었어요.</p>

7) 세종학당재단 『세종 한국어 어휘·표현과 문법』을 참고하였다.

형태: 받침이 ‘ㅅ’으로 끝나는 일부 동사, 형용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받침 ‘ㅅ’이 탈락한다.
---

위의 『세종 한국어 어휘·표현과 문법』 1A, 2A에서는 ‘ㅂ’과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설명 순서는 ‘ㅂ’ 불규칙이 앞에 나오고 ‘ㅅ’ 불규칙은 ‘ㅂ’ 불규칙 설명보다 뒤에 나오고 있다.

(11) 고려대학교 『한국어』 1, 2 (영어판)

구분	설명	예문
ㄷ 불규칙	some verbs of that those stems end in ㄷ are irregular, When the final ㄷ is followed by a vowel, it turns into an ㄹ. 듣+(어요/었어요/어서)=> 들어요/들었어요/들어서	예: 듣다, 걷다, 묻다 음악을 <b>듣고</b> 싶다. 음악을 <b>들었다</b> . 길을 <b>물어</b> 보십시오. 전화번호를 <b>물었다</b> . 많이 <b>걸어서</b> 다리가 아프다.
ㅂ 불규칙	When a verb stem ending in ㅂ is followed by an ending beginning with a vowel, the ㅂ changes to 우. However, when one-syllable bases like 돕다 and 곱다 are followed by 아, they become 도와, 고와.	산이 <b>아름다워요</b> . 이 문제는 너무 <b>어려워요</b> . 전 <b>매운</b> 음식을 싫어해요. 이 일 좀 <b>도와주세요</b> .
ㅅ 불규칙	In case vowel is followed by ㅅ, ㅅ is deleted. 낫+(아요/았어요/으면)=> 나아요/나았으면/나으면	예: 붓다, 낫다, 짓다, 젓다 뜨거운 물을 <b>부으세요</b> . 감기가 다 <b>나았습니다</b> . 새집을 <b>지으면</b> 이사 갑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 <b>저어요</b> .

고려대학교 『한국어』 1, 2에서는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전달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예문이 비교적 짧아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고려대 교재에서는 ‘ㄷ’ 불규칙이 가장 먼저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ㅂ’과 ‘ㅅ’ 불규칙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앞서 살펴본 세종어학당의 교재와 비교하면 제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비타민 한국어』 1, 2

구분	설명	예문
ㄷ 불규칙	When action verb that ends in ㄷ is a vowel, ㄷ changes to ㄹ. But verbs such as 받다, 믿다, 얻다, 닫다 ending ㄷ is not changed. 묻다+았어요->물었어요, 듣다+ 은 후에->들은 후에	자기 전에 음악을 <u>들어요</u> . 선생님께 한국어를 <u>물어요</u> . 저는 친구를 <u>믿어요</u> . 추워서 창문을 <u>닫았어요</u> . 가: 제인 씨, 오전에 무엇을 했어요? 나: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u>들었어요</u> .
ㅂ 불규칙	Some verb and adjective stems end in ㅂ, ㅂ changes to 우 or 오, when adds an ending that begins with a vowel. Only 돕다, 곱다 ending ㅂ changes to 오, while others changes to 우. But the verbs such as ‘입다, 씹다, 잡다, 접다, 집다, 좁다’ ending ㅂ is not changed. 돕다+아요 -> 도와요, 덩다+어요->더워요	제인 씨가 친구를 <u>도와요</u> . 가방이 <u>무거워요</u> . 바다가 아주 <u>아름다워요</u> . 김치찌개가 조금 <u>매웠어요</u> .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아주 <u>추워요</u> .
ㅅ 불규칙	For a few verb and adjective stems that end in ㅅ, ㅅ is omitted when they are used with vowels. But 벗다, 씻다, 옷다 verbs are the exceptions. 낫다+아요->나아요, 붓다+으니까->부으니까	작년에 새 건물을 <u>지었어요</u> . 설탕을 넣고 잘 <u>저어</u> 주세요. 제인 씨는 <u>웃는</u> 모습이 예뵈요. 손을 잘 <u>씻어야</u> 해요.

『비타민 한국어』는 다른 교재들보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위에 제시한 것처럼 ‘ㅂ, ㅅ, ㄷ’에 관련된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을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재에서 문법 설명 후에 연습 문제도 바로 도입하고 파악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한다. 『비타민 한국어』에서도 고려대 교재와 같이 ‘ㄷ->ㅂ->ㅅ’ 불규칙 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분석을 통해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어휘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4>와 같다.

<표14>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서 많이 인용되는 어휘

구분	어휘
ㅂ 불규칙 활용	덥다, 춥다, 맵다, 돕다, 곱다, 어렵다, 가깝다, 쉽다
ㅅ 불규칙 활용	있다, 굶다, 낫다, 붓다
ㄷ 불규칙 활용	듣다, 건다, 묻다, 신다

위의 <표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에 속하며, 이들 어휘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스스로 활용할 기회가 많아 불규칙 활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 3.2. 중국에서 사용 중인 교재

#### (13) 가나다 코리언 , 新『轻松学韩语』 1 , 2

구분	설명
ㄷ 불규칙	‘ㄷ’不规则动词后面如果遇到元音, ‘ㄷ’变为‘ㄹ’。也有像‘달다’, ‘받다’一样不发生变化的动词。 듣다+(으)십시오->들으십시오 묻다+어요->물어요
ㅂ 불규칙	以韵尾‘ㅂ’结尾的部分动词或形容词与元音开始的词尾相连时, 韵尾‘ㅂ’脱落, 添加‘우’或者‘오’。添加‘오’的只有‘돕다, 곱다-도와주다, 고와서’。但‘입다, 잡다, 줍다’等词当作规则词语使用, 不发生这种变化。 어렵다+어요->어려워요 가깝다+으면->가까우면
ㅅ 불규칙	以‘ㅅ’结尾的部分动词或形容词为不规则形词语。在以元音开始的音节前‘ㅅ’脱落。但也有‘웃다/벗다/씻다/빼앗다’等有规则地活用的词语。 낫다+았습니다->나았습니다 붓다+으면->부으면

중국에서 사용 중인 가나다 코리언, 『轻松学好韩语』 1, 2에서는 예문을 제시하

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교사가 따로 예문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의 불규칙 활용 설명 순서는 고려대 교재와 같이 ‘ㄷ->ㅂ->ㅅ’ 불규칙 순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모두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다.

(14) 『标准韩国语』 初级2, 中级1

구분	설명	예문
ㅂ 불규칙	<p>韵尾以‘ㅂ’结尾的动词中，一部分不规则动词与后面以元音开始的词尾连接时，把‘ㅂ’换成‘우’。但是，‘돕다(帮助)’和‘곱다(好看，漂亮)’两个词例外，在于带有‘-아/어’的词尾连接时，把‘ㅂ’换成‘오’。‘맵다, 쉽다, 고맙다, 덥다, 가깝다’等不规则动词及形容词发生这种变化，而‘뵙다, 입다, 잡다, 접다, 좁다’等规则动词和形容词，不发生这种变化。</p>	<p>김치가 매워서 물을 많이 마셨어요. 泡菜辣，我喝了很多水。 집이 가까워서 학교에 걸어 와요. 我家近，走着来学校。 빌리 씨가 좀 도와 주시겠어요? 比利，能帮我一下吗？</p>
ㄷ 불규칙	<p>韵尾以‘ㄷ’结尾的动词中，一部分不规则动词与后面以元音开始的词尾连接时，把‘ㄷ’换成‘르’。‘듣다, 걷다, 묻다(问), 실다, 깨닫다’等动词是‘ㄷ’不规则动词，而‘받다, 묻다(盖), 닫다, 민다, 연다’等东西是规则动词。</p>	<p>같이 음악을 들을까요? 我们一起听音乐好吗？ 학교에 걸어서 가요. 走着去学校。 선생님께 물어 보세요. 请问老师吧。 추우니까 문을 닫아 주세요. 天气冷，请关上门。</p>
ㅅ 불규칙	<p>部分韵尾‘ㅅ’与元音相连时，脱落不发音。 例： 낮아[나아] 짓으니[지으니]       붓어[부어] 잊어서[이어서] 但并不是所有的韵尾‘ㅅ’都属于这种变化。 例： 벗어[버서] 솟아[소사]</p>	<p>빨간 벽돌로 지은 집이 우리 집이에요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세요. 하루 종일 걸어서 다리가 많이 부었습니다.</p>

『标准韩国语』 初级2, 中级1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가나다 코리언 , 『轻松学好韩语』 1, 2와 같이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문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불규칙 활용 설명 순서도 앞의 교재와 달리 ‘ㄴ->ㄷ->ㅅ’ 불규칙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5) 『한국어1』, 韩国语教程第一册

구분	설명	비고
ㄷ 불규칙	ㄷ+元音->ㄹ:词尾的第一个音节头音是元音, 它前面的单词是‘ㄷ’收音时, ‘ㄷ’收音变作‘ㄹ’. 如: 듣다+으시오->들으시오 듣다+읍시다->들읍시다 (聽) 듣다+어->들어 듣다+은->들은	属于此类的有‘묻다(问), 신다(载), 걷다(走), 긴다(汲).....’等, 但‘달다(矣), 돈다(出), 믿다(相信), 받다(接受), 얻다(得到), 묻다(盖).....’等不属于此类。
ㅅ 불규칙	ㅅ+元音->消失:词尾的第一个音节头音是元音, 它前面的单词是‘ㅅ’收音时, ‘ㅅ’收音消失. 如: 잇다+어->이어 (连接) 잇다+은->이은 잇다+으니->이으니 잇다+으십시오->이으십시오	属于此类的有‘낫다(好), 젓다(搅), 짓다(建造), 잇다(连接)...’等, 但‘빗다(梳), 씻다(洗), 웃다(笑), 벗다(脱)...’等不属于此类。
ㄴ 불규칙	ㄴ+元音->우(오):词尾的第一个音节的头音是元音, 它前面的单词是‘ㄴ’收音时, ‘ㄴ’变成‘우’(这时词尾第一个音节的头音如果是‘으’,则‘으’音消失); 当‘ㄴ’收音前面的元音是‘ㅏ’或‘ㅑ’时, ‘ㄴ’与后面的以‘ㅏ’为头音的词尾相连, 则‘ㄴ’变为‘오’. 如: 춡다+어->추워 춡다+어서->추워서 (冷) 춡다+으니->추우니 춡다+은->추운  돕다+아->도와 돕다+아서->도와서 (帮助) 돕다+으니->도우니 돕다+은->도운	属于此类的有 ‘영광스럽다(光荣), 깃다(补), 덥다(热), 이롭다(有利), 아름답다(美丽), 무겁다(重), 어렵다(难)...’等, 但‘잡다(抓), 접다(折叠), 집다(夹), 뽑다(拔), 업다(背), 입다(穿), 씹다(嚼)...’等不属于此类。

가깝다+아->가까워	
가깝다+아서->가까워서(近)	
가깝다+으니->가까우니	
가깝다+은->가까운	

『한국어1』 韩国语教程 第一册에서는 불규칙 활용에 대한 많은 활용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불규칙 활용 외에 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을 제시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두 교재에 비해 매우 성실하게 설명하는 교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규칙 활용의 제시 순서가 ‘ㄷ->ㅅ->ㅂ’ 불규칙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15> 중국 교재에서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서 많이 인용되는 어휘

구분	어휘
ㅂ 불규칙 활용	어렵다, 가깝다, 맵다, 돕다, 춥다,
ㅅ 불규칙 활용	낮다, 붓다, 짓다, 잇다
ㄷ 불규칙 활용	듣다, 받다, 걷다, 묻다, 신다

<표14>와 <표15>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해 ‘어렵다, 가깝다, 맵다, 돕다, 춥다’ 이 어휘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고,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설명할 때 한국 교재든지 중국 교재든지 모두 ‘낮다, 붓다, 잇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해 ‘듣다, 받다, 걷다, 묻다, 신다’를 많이 인용하였다.

이상의 교재분석을 통해 각 교재에 나타난 특성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16>과 같다.

<표16>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불규칙 활용 설명 비교 분석

구분	교재명	불규칙 활용 설명 순서	사용 언어
----	-----	--------------	-------



한국 교재	『세종 한국어 어휘·표현과 문법』 1A, 2A	‘ㅂ->ㄷ->ㅅ’ 불규칙 순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 1, 2	‘ㄷ->ㅂ->ㅅ’ 불규칙 순	영어
	『비타민 한국어』 1, 2	‘ㄷ->ㅂ->ㅅ’ 불규칙 순	영어
중국 교재	가나다 코리언 , 『轻松学韩语』 1, 2	‘ㄷ->ㅂ->ㅅ’ 불규칙 순	중국어
	『标准韩国语』 初级2, 中级1	‘ㅂ->ㄷ->ㅅ’ 불규칙 순	중국어
	『한국어1』 韩国语教程第一册	‘ㅅ->ㄷ->ㅂ’ 불규칙 순	중국어

위의 <표16>을 보면 ‘ㄷ->ㅂ->ㅅ’ 불규칙 순으로 설명하는 교재가 제일 많다. 이는 학습자들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순서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ㅂ->ㄷ->ㅅ’ 불규칙 순,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 중인 교재 『한국어1』 韩国语教程 第一册에서만 ‘ㄷ->ㅅ->ㅂ’ 불규칙 순으로 불규칙 활용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ㅅ’ 불규칙을 가장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이 교재에서는 ‘ㅂ’ 불규칙 활용을 가장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한국 교재와 달리 대부분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 내용을 자국어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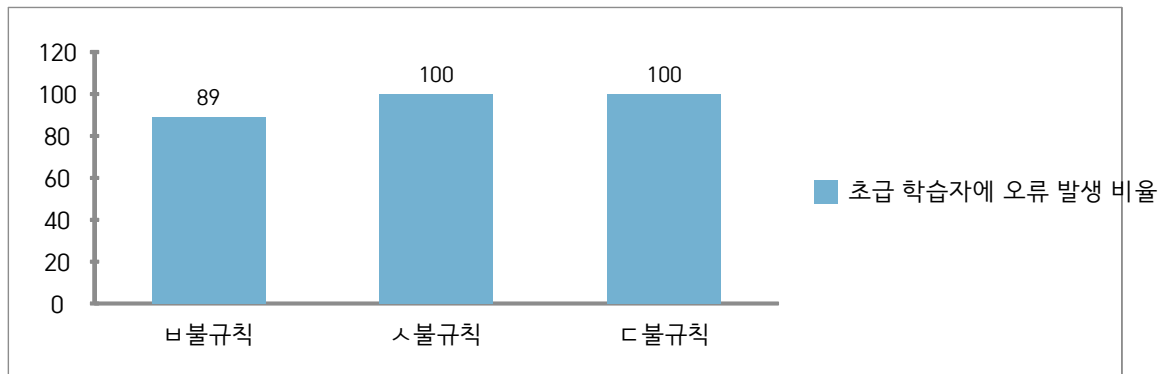
### Ⅲ. 불규칙 활용 오류 양상 분석 및 지도 방안

#### 1. 오류 양상 분석

##### 1.1. 한국어 능력 등급별 오류 양상

설문조사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의 각 수준 한국어 학습자가 이 세 가지 불규칙 활용 유형을 학습할 때 어느 유형에서 오류를 발생하는 학습자가 많은지, 그리고 각각 어떤 오류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초급 수준, 중급 수준,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ㄷ, ㅂ, ㅅ’ 불규칙 활용을 발화할 때 오류를 나타나는 인원수를 나타낸 표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불규칙 활용할 때 한국어 수준과 상관없이 ‘ㅂ’ 불규칙 활용의 오류를 발생하는 인원수가 ‘ㅅ’ 불규칙 활용할 때 나타나는 인원수보다 훨씬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래 그림과 같다.

<표17> 초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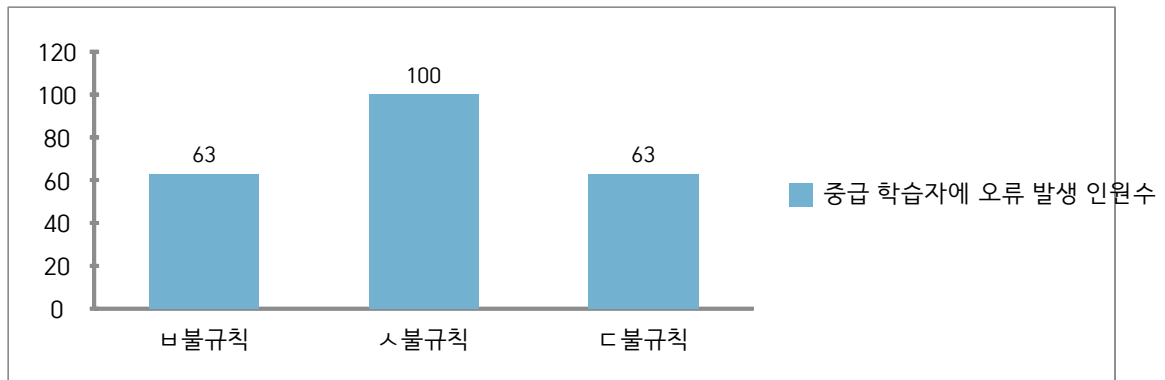


위의 <표17>를 보면 ‘ㅂ’ 불규칙 활용에서 오류 발생하는 인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ㅂ’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어휘는 초급 단어인 경우가 많고, 각 교재에서도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은 거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초급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ㅂ’ 불규칙 활용은 오류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를 통해서도 이 추측을 검증할 수 있다.

위의 <표17>를 보면 초급 한국어 수준의 피험자 18명 모두 ‘ㅅ’ 불규칙 활용과 ‘ㄷ’ 불규칙 활용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ㅂ’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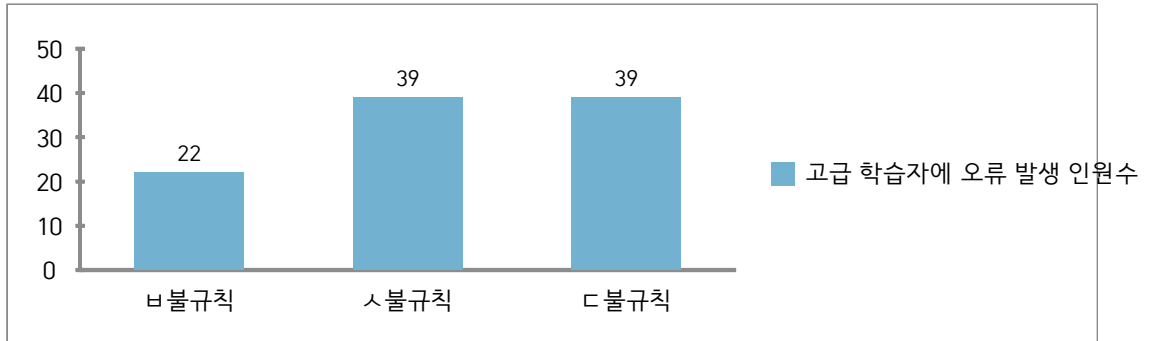
의 다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피험자가 2명이 있었다. 분석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은 피험자가 다른 초급 수준의 피험자에 비해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ㅂ’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어휘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ㅅ’ 불규칙 활용과 ‘ㄷ’ 불규칙 활용에 관련된 불규칙한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어휘들이 있어 초보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18> 중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단위: %)



위의 <표18>을 보면 중급 학습자의 경우 ‘ㅅ’ 불규칙 활용에서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으며, 이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보다도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이 세 가지 불규칙 활용에 오류를 발생하는 학습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초급보다 적지만, 여전히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잘 모르므로 규칙 활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ㄷ’ 규칙 활용과 ‘ㅂ’ 규칙 활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사람은 적지만, ‘ㄷ’ 불규칙 활용과 ‘ㅂ’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어휘 중 동음이의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혼란이 생겨 오류가 나는 학습자가 많다.

<표19> 고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 (단위: %)



위의 <표19>을 보면 초급이나 중급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오류율은 낮으나, ‘ㄷ’ 과 ‘ㅅ’ 불규칙 활용의 오류율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이 세 가지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할 때 틀린 사람의 수가 훨씬 적다. 특히 ‘ㅂ’ 불규칙 활용은 해당 어휘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고급 수준의 피험자 23명 중 5명에서만 오류가 나타났고, ‘ㅅ’ 불규칙 활용과 ‘ㄷ’ 불규칙 활용도 초급과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오류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류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초급, 중급, 고급 모두에서 ‘ㅅ’ 불규칙 활용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ㅂ’ 불규칙 활용에서 오류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2. 불규칙 유형별 오류 양상

### 1.2.1. ‘ㅂ’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이란 용언 어간의 말음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연결될 때, ‘ㅂ’이 ‘우’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의 활용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표20> ‘ㅂ’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

어간 / 어미 <sup>8)</sup>	-아/어-	-고	-지	-으면
굽-	구워	굽고	굽지	구우면
줍-	주워	줍고	줍지	주우면
덥-	더워	덥고	덥지	더우면
춡-	추워	춡고	춡지	추우면
돕-	도와	돕고	돕지	도오면
아쉽-	아쉬워	아쉽고	아쉽지	아쉬우면
어렵-	어려워	어렵고	어렵지	어려우면
가깝-	가까워	가깝고	가깝지	가까우면
아름답-	아름다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름다우면

(16) ㄱ. 돕다: 돕--+아 -> 도오아>도와

ㄴ. 곱다: 곱--+아 -> 곱오아>고와

또한 ‘ㅂ’ 받침의 ‘줍다’와 ‘돕다’는 형태가 비슷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단어들이다. 이렇게 형태가 비슷한 용언들은 따로 모아서 학습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학습시켜야 한다.

<표21> ‘ㅂ’ 의 복수 기저형-‘덥다’ 예시로

복수 기저형	어미	형태 변화	표면형태	실제 발음
--------	----	-------	------	-------

8)한국어 어미는 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고, -지, -다,-는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아/어, -아/어서 등) 매개모음 어미, 즉 ‘으’계열 어미(-(-으)니까, -(으)면, -(으)십시오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	덥+-고	덥고	덥꼬
덥/더우	+으니	더우+-으니	더우니	더우니
	+어서	더우+-어서	더워서	더워서

위의 <표21>에서 ‘덥고, 덥지’에서의 ‘덥-’과 ‘더워, 더우며’의 ‘더우-’는 같은 형태소이다.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모양을 ‘덥-’으로 고정하여 적는다면 ‘덥어, 덥으며’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덥어, 덥으며’는 [더버], [더브며]로 읽히게 되므로 표준어 [더워], [더우며]의 소리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덥고, 덥지, 더워, 더우며’는 한 형태소의 활용형이지만 그 형태를 하나로 고정할 수 없고 ‘덥-’, ‘더우-’ 두 가지<sup>9)</sup>로 적게 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ㄷ’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서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오류 답안 사례들이다.

문제17) 춡어서(추워서) 몸이 떨려요.  
 문제18) 조금 춡우(춡)지만 참을 수 있어요.  
 문제19) 밖에 춡우니까(추우니까) 많이 입으세요.  
 문제20) 가깝아서(가까워서) 걸어가도 돼요.  
 문제22) 산이 가깝으니(가까우니) 집에 벌레가 많다.  
 문제23) 돕아(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26)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으니(도오니)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문제27) 고기를 굽어서(구워서) 먹어요.  
 문제30) 그 식당에서는 고기를 굽을(구울) 때 숯불을 사용한다.

9)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설명 방식은 교체형이 둘 이상 있을 때 교체형 각각을 어휘부에 등재함으로써 교체형에 적용된 교체에 대해 공시적 설명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즉 복수 기저형은 교체형에 적용된 교체가 공시적 설명의 대상이 아닌, 통시적 산물임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복수 기저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교체의 공시성, 통시성은 핵심적인 문제이다. 공시적인 교체가 적용된 교체형은 복수 기저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출처: 신승용(2018), <불규칙적 교체의 복수기저형 설정에 대한 비판>)

‘춡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이 어휘의 오류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형태변화와 관련된 문법을 이해하고 있다기보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단어라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깝다’는 중급 및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 오류가 거의 없지만,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규칙적 활용 용언이라고 착각하여 오류를 보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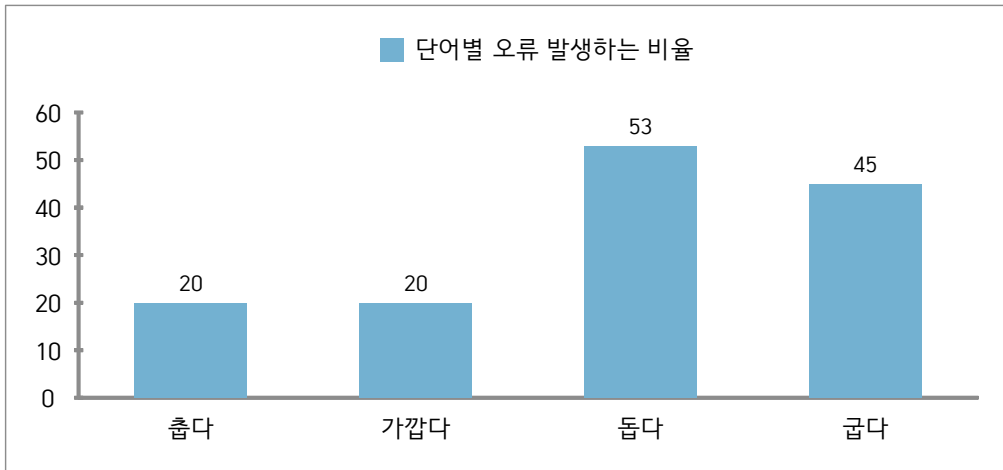
위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면 아래의 <표2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춡다’의 경우 다른 어휘들과 달리 자음 어미 앞에서도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ㅂ’ 불규칙 활용 규칙을 모음 어미에만 적용해야 하는 것을 자음 어미에도 확대해서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22> ‘ㅂ’ 불규칙 활용 오류 양상 결과

	실제 발생하는 오류형태		
	+모음 어미	+자음 어미	+‘으’계열 어미
춡다	춡어서	춡우지만	춡으니까 춡웁니까
가깝다	가깝아서 가깝워서	×	가깝으니
돕다	도워주셔서 도아주셔서	×	돕으니 도오니
굽다	굽어서	×	굽을 때

아래의 <표23>은 ‘ㅂ’ 불규칙의 어휘별 오류율은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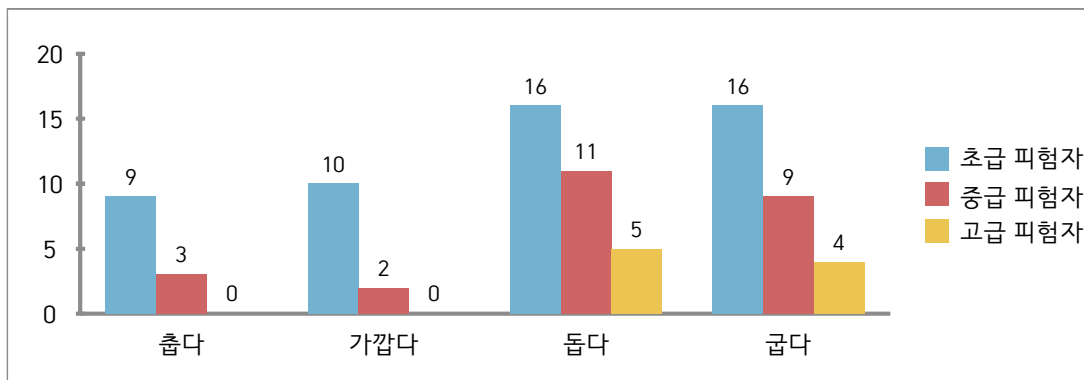
<표23> ‘ㅂ’ 불규칙 활용 어휘별 오류율(단위:%)



위의 <표23>을 통해 ‘돕다’와 ‘굽다’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음 어미나 ‘으’ 계열 어미와 결합할 때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오류가 발생한 학습자는 주로 초급과 중급 학습자이며, ‘돕다’, ‘굽다’에 오류를 발생한 학습자는 전부 피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 두 단어의 활용 형태가 다른 용언에 비해 다소 복잡하며,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이 두 단어를 불규칙적으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형태변화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래의 <표24>는 ‘ㅂ’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등급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를 통해 확인되듯이 초급 학습자들의 오류율이 가장 높으며, 고급으로 갈수록 오류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4> ‘ㅂ’ 불규칙 활용의 어휘별 오류율(단위:명)





불규칙 활용의 오류 원인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규칙 활용 용언으로 잘못 알고 그에 따른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ㅂ’ 불규칙 활용의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여 형태를 변화할 때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아래의 <표25>는 ‘ㅂ’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쓰기’와 ‘발음’의 오류 양상은 나타낸 것이다.

<표25> ‘ㅂ’ 불규칙 활용의 쓰기와 발음 오류 양상(단위: 명)

어휘별	한국어 등급	쓰기	발음
출다	초급	9	13
	중급	3	3
	고급	0	0
가깝다	초급	10	13
	중급	2	2
	고급	0	0
돕다	초급	16	18
	중급	11	19
	고급	5	16
굽다	초급	16	18
	중급	9	19
	고급	4	16

<표25>에 따르면 ‘ㅂ’ 받침 어휘는 발음할 때 오류가 쉽게 발생하며,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불규칙 활용 규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잘못된 형태로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음에도 영향을 미쳐 잘못된 발음의 원인이 된다. 표에 나타난 발음 오류를 발생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피험자들이 한국어의 기초 음운 중 음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 ㄱ. 입다 + 는->입는[임는]

ㄴ. 잡다 + 는->잡는[잡는]

ㄷ. 뽑다 + 는->뽑는[뽑는]

ㄹ. 씹다 + 는->씹는[씹는]

위의 (17)에서와 같이 어간 말음 ‘ㅂ’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ㅂ’ 발음이 ‘ㅁ’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비음화 규칙에 해당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피험자에게 문장을 완성하게 하고 용언을 활용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형태를 얻었으며, 피험자에게 문장을 낭독시키고 녹음하게 하였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와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비음화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며, 문장을 읽을 때 ‘ㅂ’의 발음을 강하게 읽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중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서 오류를 보였다.

### 1.2.2. ‘ㅅ’ 불규칙 활용

‘ㅅ’ 불규칙 활용이란 용언의 어간에 있는 ‘ㅅ’ 받침이 ‘-고, -지, -더라’ 등과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어, -으니, -으면’ 등과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하면 받침 ‘ㅅ’을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래의 <표26>은 ‘ㅅ’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표26> ‘ㅅ’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

어간	어미	‘-어/아-’	-고	-지	-으면
낮-		나아	낮고	낮지	나으면
붓-		부어	붓고	붓지	부으면
잇-		이어	잇고	잇지	이으면
젓-		저어	젓고	젓지	저으면
(집을)짓다		지어	짓고	짓지	지으면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는 불규칙 활용 중에서 ‘ㄷ, ㅂ’을 먼저 설명하고, ‘ㅅ’ 불규칙 활용은 ‘ㄷ, ㅂ’ 불규칙 활용의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 하고 있다. 이는 ‘ㅅ’ 불규칙 활용의 경우 ‘ㄷ, ㅂ’ 불규칙 활용과 변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ㄷ’ 불규칙 활용은 받침 ‘ㄷ’이 ‘ㄹ’로 교체하고, ‘ㅂ’ 불규칙 활용은 받침 ‘ㅂ’이 ‘우/오’로 변하지만, ‘ㅅ’ 불규칙 활용은 교체나 변화가 아닌 탈락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나 교체가 아닌 탈락의 경우 외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교재에서 ‘ㅅ’ 불규칙 활용을 교재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표27> ‘ㅅ’의 복수 기저형- ‘짓다’ 예시로

복수 기저형	어미	형태 변화	표면 형태	실제 발음
질/지	-고	짓+-고	짓고	질꼬
	+으니	지+-으니	지으니	지으니
	+어서	지+-어서	지어서	지어서

여기서 기저형은 /짓-/으로 선정하면 평파열음화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질-/으로 선정된다. 그렇지만 규칙은 조건만 같으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ㄷ)에서 기저형은 /질-/으로만 잡으면 안 된다. 하지만 두 개의 적용 양상이 다르니까 따라서 기본형과 기저형도 다르다. 기본형은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기저형은 음운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 Δ/(반치음)을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모음 앞에서 Δ이 탈락하고, 자음 앞에서 Δ이 ‘ㅅ’으로 바뀐다(Δ->ㅅ)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Δ은 음운체계 내에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기저형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 /질-/과 /지-/로 두 개를 인정해야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ㅅ’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서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오류

답안 사례들이다.

문제46) 불이 꺼지고 잇어서 (이어서) 영화가 시작되었다.  
 문제49) 여기에 있는 선들을 다 잇으라고 (이으라고)?  
 문제50) 밤을 새웠더니 눈이 붓었어요 (부었어요).  
 문제53) 내일 얼굴이 붓으면 (부으면) 안 되는데...  
 문제54) 그렇게 짓어서 (지어서) 말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문제57) 죄를 짓으면(지으면)누구나 벌을 받는다.  
 문제58) 나 이제 괜찮아, 병이 이미 다 났았어(나았어).  
 문제61) 아이의 병이 났으니 (나으니) 마음속 큰 근심이 사라졌다.

위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한 실험 대상자들의 답을 보면 받침 ‘ㅅ’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ㅅ’ 불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28>은 이상의 설문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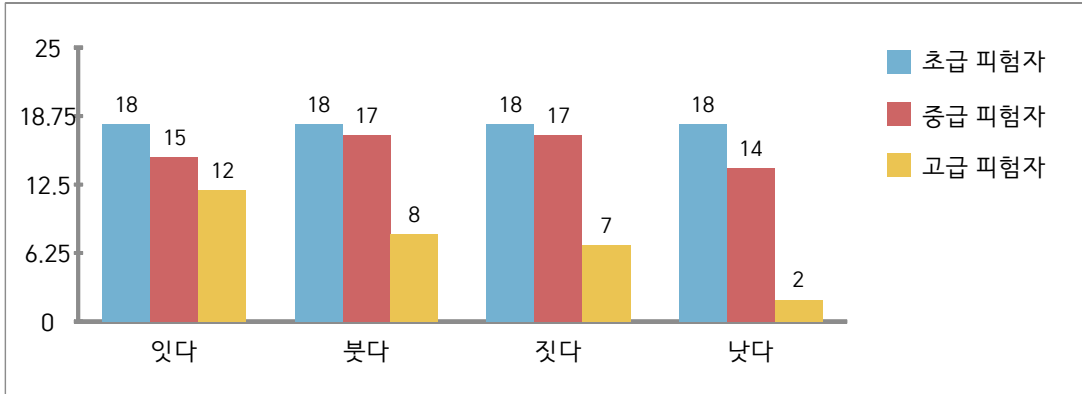
<표28> ‘ㅅ’ 불규칙 활용 용언 오류 양상

	실제 발생하는 오류형태		
	+모음 어미	+자음 어미	+‘으’계열 어미
잇다	잇어서	×	잇으라고
붓다	붓었어요	×	붓으면
짓다	짓어서	×	짓으면
났다	났았다	×	났으니

아래의 <표29>는 ‘ㅅ’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어휘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잇다’의 오류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짓다’가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잇다’와 ‘짓다’가 중국인 학습자들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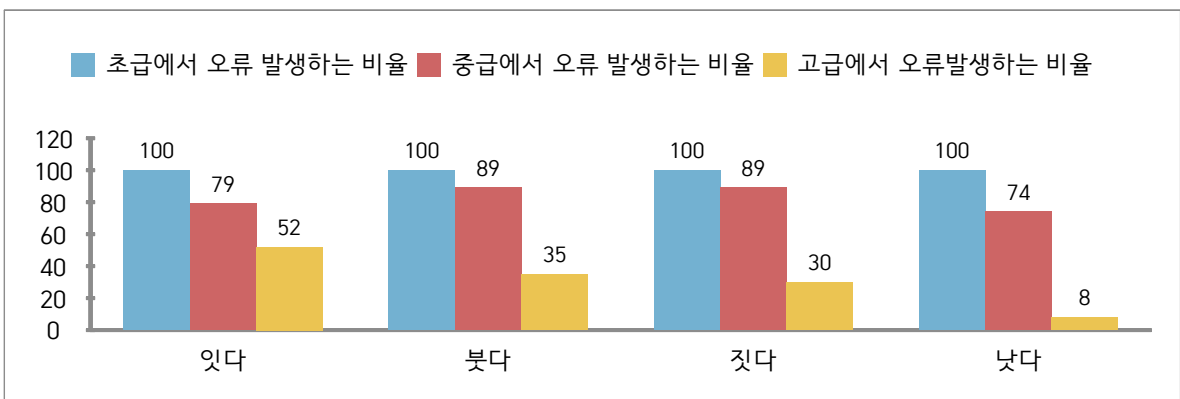
않은 단어들이어서 이 단어들을 이용한 활용형이나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낮설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

<표29> ‘ㅅ’ 말음 용언 어휘별 오류율(단위:%)



아래의 <표30>은 ‘ㅅ’ 불규칙 활용에 나타난 오류 양상을 등급별로 나타낸 것이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모든 어휘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급 학습자들도 ‘ㄷ’이나 ‘ㅂ’ 불규칙 활용에 비해 오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은 ‘잇다’를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에서는 오류율이 높지 않다.

<표30> ‘ㅅ’ 말음 용언의 등급별 오류율(단위:%)



결국,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는 ‘ㅅ’의 불규칙한 활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초급 학습자 18명 모두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31>은 ‘ㅅ’ 불규칙 활용의 ‘쓰기’와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이다.

<표31> ‘ㅅ’ 불규칙 활용의 쓰기와 발음 오류 양상(단위: 명)

어휘별	한국어 등급	쓰기	발음
잇다	초급	18	18
	중급	15	15
	고급	12	12
붓다	초급	18	18
	중급	17	17
	고급	8	8
짓다	초급	18	16
	중급	17	17
	고급	7	7
낮다	초급	18	18
	중급	14	14
	고급	2	2

‘ㅅ’ 불규칙 활용 어휘들에서 발음을 잘못하는 이유는 활용할 때 어간이 잘못된 형태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태가 틀려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도 있다.

(18) 찢 + 어->찢어[씨서]

웃 + 어->웃어[우서]

(18)의 예문에 사용된 ‘찢다’와 ‘웃다’는 이들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경우 ‘찢어’와 ‘웃어’로 표기하고 [씨서], [우서]로 발음하게 되는데, 어간의 끝소리 ‘ㅅ’을 ‘-어’와 직접 연결하여 ‘씨서’로 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형태적으로는 틀리지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 1.2.3. ‘ㄷ’ 불규칙 활용

‘ㄷ’ 불규칙 활용은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이어질 때, ‘ㄷ’이 ‘ㄹ’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받침이 ‘ㄷ’으로 끝나는 모든 용언이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표32>은 ‘ㄷ’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표32> ‘ㄷ’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

	-아/어-	-고	-지	-으면
듣-(聞)	들어	듣고	듣지	들으면
걸-(步)	걸어	걸고	걸지	걸으면
묻-(問)	물어	묻고	묻지	물으면
깨달다	깨달아	깨달고	깨달지	깨달으면

위의 <표33>에서 확인되듯이 ‘ㄷ’ 받침의 어간들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듣-+-어’의 경우 ‘들어’가 아닌 ‘들어’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음이의어인 ‘묻다(問)/ ‘묻다(蓋)’, ‘걷다(步)/ ‘걷다(收)’처럼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어휘는 아래의 (9)에서처럼 형태는 같지만,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와 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로 구분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19) ㄱ. 묻다(問)

예) 그 남학생은 저 여학생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다.

묻+ 었다 -> 물었다(불규칙 활용)

ㄴ. 묻다(蓋)

예)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 공동묘지에 묻었다.

묻+었다 -> 묻었다(규칙 활용)

위의 (19)에서 살펴본 것처럼 ‘묻다(問)’는 ‘묻어, 묻어서’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하지만, ‘묻다(蓋)’는 ‘묻어, 묻어서’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어휘들은 따로 선별하여 예문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불규칙 활용 결과 음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쓰기에도 이를 반영하여 쓰게 되는데, 아래의 <표33>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도록 주의 시킬 필요가 있다.

<표33> ‘ㄷ’의 복수 기저형- ‘듣다’ 예시로

복수 기저형	어미	형태 변화	표면 형태	실제 발음
듣/들	-고	듣+-고	듣고	듣꼬
	+으니	듣+-으니	듣으니	드르니
	+어서	듣+-어서	듣어서	드러서

위에 표를 살펴보면 ‘듣다’도 마찬가지로 ‘듣-’과 ‘드르-’은 같은 형태소이지만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모양을 ‘듣--’으로 고정하여 적는다면 ‘들어, 들으니’로 적어야 하는데 읽을 때 표준어 [드러], [드르니]의 소리를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듣다’의 기저형도 ‘듣-’, ‘들르-’ 두 가지로 적게 된다. 그런데 기저형 /드르-/ 뒤에서 모음 어미 ‘어’, ‘으니’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해서 ‘들어’, ‘들으니’로 적게 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ㄷ’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서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오류 답안 사례들이다.

문제17) 제 말을 좀     들어     (들어) 주세요.  
 문제20) 그 노래를     들을     (들을) 때마다 슬퍼져.



문제21) 학교에 가까워서      걸어가면 (걸어가면) 5분만 걸려요.  
 문제23) 꽃길을      걸으니 (걸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문제28) 늦게라도      깨달아서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다.  
 문제31) 바보라도      깨달을 (깨달) 때가 있다.

위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면 아래의 <표34>와 같이 자음 어미와 연결될 때는 대체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음 어미나 매개 모음 ‘으’에 연결될 때는 오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류 양상은 받침의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ㄷ>ㄹ’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해 어미 모음 앞에서도 ‘ㄷ’ 받침을 그대로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4> ‘ㄷ’ 용언 어휘별 나오는 오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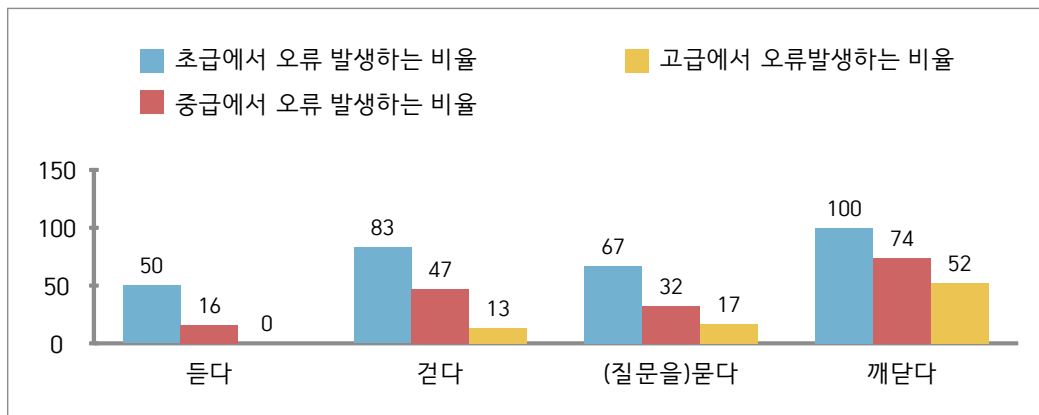
	설문지에 표기된 오류 양상		
	+모음 어미	+자음 어미	+‘으’계열 어미
듣다	들어주세요 들러주세요	×	듣을 들
걷다	걸어가면	×	걸으니
묻다(问)	묻어봐요 물러봐요	×	묻으니
깨달다	깨달아서	×	깨달을 때

일반적으로 ‘ㅂ’ 불규칙 활용, ‘ㅅ’ 불규칙 활용과 마찬가지로 ‘ㄷ’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용언은 규칙적으로 활용할 때 오류율이 낮다. 특히 ‘받다’, ‘닫다’, ‘민다’ 이 세 용언은 뒤에 모음 어미든 자음 어미든 연결되든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음운규칙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은 모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솔지(2014)에 따르면 ‘듣다’, ‘걷다’라는 단어는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규칙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각 등급의 학습자는 오류를 나타내지 않지만, 모음 어미나 ‘으’ 계열 어미와 결합할 때 ‘ㄷ’이 ‘ㄹ’로 교체하는 형태변화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초급 학습자와 소수의 중, 고급 학습자들에서도 오류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

다. ‘깨달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가 아니어서 일부 고급 학습자도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도 ‘깨달다’가 불규칙적으로 활용할 때 오류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다.

아래의 <표35>는 ‘ㄷ’ 불규칙 활용에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등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35> ‘ㄷ’ 불규칙 활용 등급별 오류 양상(단위:명)



위의 <표35>를 통해 초급 단계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고급 단계로 갈수록 오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깨달다’의 경우 고급 학습자들에게서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단정 짓기가 어렵다. 즉, ‘깨달다’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ㄷ’ 불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다음은 ‘ㄷ’ 불규칙 활용 양상을 ‘쓰기’와 ‘발음’으로 나누어 오류를 살핀 결과이다.

<표36> ‘ㄷ’ 불규칙 활용의 쓰기와 발음 오류 양상(단위: 명)

어휘별	한국어 등급	쓰기	발음
문다(蓋)	초급	18	18
	중급	12	12
	고급	11	11
든다	초급	9	9
	중급	3	3
	고급	0	0
건다	초급	15	15
	중급	9	9
	고급	3	3
문다(問)	초급	12	10
	중급	6	6
	고급	4	3
깨닫다	초급	18	18
	중급	14	14
	고급	12	12

‘ㄷ’ 불규칙 활용 어휘를 발음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활용할 때 형태가 잘못 바뀌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간의 말음 ‘ㄷ’ 뒤에 ‘ㄴ’이 올 때 ‘ㄷ’의 발음이 ‘ㄴ’으로 바뀌는 한국어의 비음화 규칙도 원인이 된다.

‘ㄷ’ 규칙 활용과 관련된 단어는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 모두 잘 익히지만 표에 따르면 초급과 중급 학습자는 ‘ㄷ’ 불규칙 활용의 형태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포함해 모두 피험자가 동음이의어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37>은 조사 대상자가 학업에만 전념하는지 아니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지 여부가 발음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제외한 중급과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불규칙 오류율을 조사한 것이다. 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체류 기간의 제약으로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표37> 중·고급 학습자의 아르바이트 여부에 따른 오류 양상(단위: 명)

등급	성별	한국어 능력 등급	한국어 학습 기간	아르바이트 참가여부
중급	남	TOPIK 3급(3명)	2-3년	X
	남	TOPIK 4급(1명)	3년	X
	남	TOPIK 4급(3명)	3-4년	O
	여	TOPIK 3급(2명)	1-2년	X
	여	TOPIK 3급(2명)	2년	O
	여	TOPIK 4급(8명)	2-5년	O
고급	남	TOPIK 5급(3명)	4-5년	X
	남	TOPIK 5급(1명)	5-6년	O
	남	TOPIK 6급(3명)	6-8년	O
	여	TOPIK 5급(7명)	4-6년	O
	여	TOPIK 6급(9명)	5-10년	O

위의 <표37>을 보면 대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습자들에서 오류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오류 발생원인 및 학습 지도 방안

### 2.1. 오류 발생원인

중국인 학습자가 ‘ㄴ, ㅅ, ㄷ’ 불규칙 활용을 발음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구조 및 동사 활용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첫째, 언어 구조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언어 구조가 다르다. 한국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의 언어 요소들이 문장 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문맥을 통해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중

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에서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을 사용할 때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나 역할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동사 활용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어에서는 ‘ㅂ, ㅅ, ㄷ’ 불규칙을 통해 동사 원형과 활용 형태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듣다’의 활용 형태는 ‘들어요’, ‘들으니’ 등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의 활용 형태가 한국어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중국어 동사는 시제나 인칭 등의 정보를 별도의 조사나 부사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에서의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을 중국어 동사에 적용하려고 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가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을 배울 때, 언어 구조와 동사 활용 방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예시나 문장 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을 익히고, 교정 및 피드백을 받으면서 올바른 문장 구조와 동사 활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 2.1.1. ‘ㅂ’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를 막론하고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지만 모음 어미나 ‘으’ 계열 어미와 연결할 때 단어의 의미를 모르거나 불규칙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태변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학습자가 많다. ‘ㅂ’ 불규칙 활용 어휘 중에 동형이의어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굽다(炙)’와 ‘굽다(曲)’ 이 두 단어를 활용할 때는 앞뒤 문장과 결합해 두 단어의 의미와 활용 규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2.1.2. ‘ㅅ’ 불규칙 활용

‘ㅅ’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 두 개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는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기본 형태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정확한 형태 변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ㅅ’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어간의 ‘ㅅ’ 을 완전히 탈락해야 하기

때문에 모음 어미와 '으' 계열 어미를 연결할 때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1.3. 'ㄷ' 불규칙 활용

'ㄷ'의 규칙 활용 용언은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형태 변화의 방식도 간단하다는 점은 이 부분에서 틀린 사람의 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이며, 'ㄷ' 불규칙 활용 용언은 뒤에 모음이 올 때 'ㄷ'이 'ㄹ'로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이 규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오류를 나타내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동형이의어인 '묻다(問)'와 '묻다(蓋)'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일방의 활용 형태로 사용하는 점도 오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ㄷ'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주요 원인은 한국어 음운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동형이의어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겠다.

## 2.2. 학습 지도 방안 <교수-학습모형>

언어교육은 언어에 대한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대한 절차적인 지식을 내용으로 한다. 전자는 대상언어에 내재된 규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해서 후자는 실제적인 활용에 필요한 지식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언어 교수에 접근하는 방식과 가르치는 방법은 언어를 보는 관점, 언어 교수와 학습의 목적,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남성우 외, 2011:55). 이와 같은 이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PPP 언어교육 모형에 근거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PPP 수업 모형은 전통적인 언어 교수 방법으로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 발화(Production)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제시 단계는 학생들에게 해당 시간의 수업 내용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미리 알리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제시의 방법은 해당 시간의 수업 내용에 따라, 그리고 교사의 지도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의 연습단계는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함께 연습해 보는 단계이다. 연습의 방법도 구체적으로는 기계적 문형 연

습이나,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는 유의미 맥락 연습이 있다. 마지막으로 발화단계는 학생들이 연습을 통해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발화해 보도록 하는 단계이며, 의사소통 연습의 단계가 있다. 의사소통 연습의 단계는 교사 주도의 통제가 많고 적음에 따라 통제적 연습과 자유 연습이 있다. 의사소통 연습의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발화하도록 한다. 염선정(2018)에서도 ‘제시-설명-연습’의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제시하는 5단계 중에서 ‘활용-마무리’ 단계를 제외한 ‘도입-제시-연습’의 단계에 따라 학습지도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학습지도안은 학습자의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불규칙 활용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 교재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을 초급 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이후 고급 단계에까지 해당 어휘가 나타나면 교수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지도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는 앞에서 살펴본 교재분석에 근거하여 각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한 것이다.

### 2.2.1. ‘ㅂ’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 학습지도안 작성에는 ‘춡다’를 사용한다. ‘춡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로 학습자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단어이다.

< 표38 >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해 지도안

단계	수업 내용	비고
도입	<p>수업 내용 도입하기 전에 학습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먼저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대화를 통하여 ‘ㄷ’ 불규칙 활용을 관련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질문과 대화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ㅂ’ 불규칙 용언을 사용하여 학습자를 학습 내용으로 이끈다.</p> <p>예) 교사: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을 싫어해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A씨는 어느 계절을 싫어해요? A: 저는 겨울과 여름을 싫어해요. 겨울은 춡고 여름은 더워</p>	PPT로 예문을 제시하기

	<p>요.</p> <p>교사: 맞아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워요. 저는 에어컨 바람도 싫어해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은 어때요?</p> <p>학생: 에어컨 바람은 추어요. 하지만, 여름에는 꼭 필요해요.</p> <p>위와 같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불규칙 용언 ‘춥다’가 어미와 결합하면 변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춥다’가 나오는 부분을 느리게 읽거나 반복해서 읽으면서 학생들이 불규칙 용언 ‘춥다’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p>	
제시	<p>제시 단계에 해당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먼저 제시해야 하고 변화되는 형태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의미를 제시할 때 초급 학습자를 고려해서 쉬운 단어로 의미를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p> <p>1) 의미 제시 ‘ㅂ’ 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받침이 ‘ㅂ’인 용언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어간의 ‘ㅂ’이 ‘우/오’로 변한다.</p> <p>2) 형태 제시: V, adj, + -아/어, -았/었, -(으)니까 *춥다 자음 앞에: 춥고[추꼬], 춥지[추찌] 모음 앞에: 춥+어(추우어)-&gt;[추워] =&gt; ㅂ&gt;우               춥+어서(추우어서)-&gt;[추워서] =&gt; ㅂ&gt;우</p> <p>다만, ‘돕다’와 ‘굽다’는 모음 어미 ‘-아’를 만나면 ‘도와’/‘고와’로 변한다. 학생에게 그림 카드를 제시하여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형을 익히게 한다.</p> <p>교사: ‘밉다’가 있어요. ‘밉다’는 뒤에 자음 어미가 오면 ‘밉고[밉꼬], 밉지[밉찌], 밉더라[밉떠라]’처럼 소리가 나요. 그리고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밉+어서[미워서], 밉+으니[미우니], 밉+었다[미웠다]’처럼 소리가 나요.</p> <p>교사: 여러분 소리가 나는 것과 쓰는 것이 같지 않아요. ‘나는 친구가 밉더라 or 밉떠라’ 어느 것이 맞아요? 학생: ‘밉더라’가 맞아요 교사: 맞아요. ‘밉더라’라고 쓰고 ‘밉떠라’라고 발음해야 됩니다.</p> <p>위의 예문처럼 ‘ㅂ’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제시할 때 규칙 활용</p>	<p>형태 변화되는 부분이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발음과 작성할 때 차이점도 지적하기</p>



	<p>을 포함하는 예문을 보여주면서 학습자들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차이를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p>																																													
<p>연습</p>	<p>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지식을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과 유의미적인 연습 활용을 한다.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p> <p>1) 반복 연습</p> <p>교사: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겨울의 찍는 사진이에요, 겨울에 어때요? 더워요? 추워요?          학생: 추워요.          교사: 맞아요, 겨울은 추워요. 그다음 사진을 봅시다.          이 사진에서 남자는 여자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학생: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줘요.          교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도와주는군요.          나는 가끔 친구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학생: 저도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미워요.</p> <p>기계적인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더 많은 용언을 가지고 다양한 어미와 결합해서 불규칙 용언의 활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 문제를 제공해준다.</p> <table border="1" data-bbox="363 1433 1114 1691">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4">+ 자음어미</th> <th colspan="4">+모음어미</th> </tr> <tr> <th>-다</th> <th>-고</th> <th>-지</th> <th>-는</th> <th>-아/어</th> <th>-으면</th> <th>-을</th> <th>-은</th> </tr> </thead> <tbody> <tr> <td>돕다</td> <td></td> <td>돕</td> <td></td> <td></td> <td>더워</td> <td></td> <td></td> <td></td> </tr> <tr> <td>춡다</td> <td></td> <td></td> <td>춡</td> <td></td> <td></td> <td>추 으 면</td> <td></td> <td></td> </tr> <tr> <td>돕</td> <td></td> <td></td> <td></td> <td>돕</td> <td></td> <td></td> <td></td> <td>도 은</td> </tr> </tbody> </table> <p>2) 유의미적 연습</p> <p>학습자들이 불규칙 용언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대화문을 제시하여 준다.</p> <p>예) 다음에 용언의 알맞은 형태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p> <p>1. 춡다</p>		+ 자음어미				+모음어미				-다	-고	-지	-는	-아/어	-으면	-을	-은	돕다		돕			더워				춡다			춡			추 으 면			돕				돕				도 은	<p>형태 변화되는 부분이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발음과 작성할 때 차이점도 지적하기</p>
	+ 자음어미				+모음어미																																									
	-다	-고	-지	-는	-아/어	-으면	-을	-은																																						
돕다		돕			더워																																									
춡다			춡			추 으 면																																								
돕				돕				도 은																																						

가)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 )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1. 그는 어려운 친구를 \_ \_ \_ (돕다)는다.
2. 엄마는 아들의 공부를 잘 \_ \_ \_ \_ (돕다)와준다.
3. 그녀의 일을 \_ \_ \_ \_ (돕다)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다.
4. 나는 겨울이 \_ \_ \_ \_ (춥다)워서 싫다.
5. 러시아는 \_ \_ \_ \_ (춥다)운 나라이다?
6. \_ \_ \_ \_ (춥다)을 때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신다.
7. 베트남은 \_ \_ \_ \_ (덥다)운 나라다.
8. 여름에는 너무 \_ \_ \_ \_ (덥다)우니까 집에서 쉰다.
9. \_ \_ \_ \_ (덥다)을 때는 바닷가에 놀러 간다.
10. \_ \_ \_ \_ (춥다)다고, 집에만 있으면 실짚다.

보기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두 사람 짝을 하고 대화를 진행하게 한다.<sup>10)</sup>



‘ㅂ’ 불규칙 활용을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주의할 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돕다’와 ‘곱다’는 모음 어미 ‘-아’와 결합할 때 ‘ㅂ’이 ‘우’가 아닌 ‘오’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음조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는 ‘좁다’와 ‘좁다’는 형태가 비슷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같은 어휘로 착각

10) 그림 출처: <비타민 한국어> 1

할 수 있다. ‘좁다’는 규칙 활용 용언이고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좁다’는 불규칙 활용 범주에서 속하며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ㅂ’이 ‘우’로 바뀐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단어들은 따로 모아서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셋째는 동음이의어인 ‘굽다(炙)’와 ‘굽다(曲)’인데, 이런 유형은 앞에서 살펴본 ‘좁다’와 ‘좁다’처럼 모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들이다. 그리고 ‘굽다(炙)’는 ‘구워, 구우니’처럼 불규칙 활용을 하지만, ‘굽다(曲)’는 ‘굽어, 굽으니’처럼 규칙 활용을 한다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유형이다. 이처럼 동형이의어이면서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와 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를 따로 선별해서 문장을 이용해 자주 연습시킨다면 학습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2.2. ‘ㅅ’ 불규칙 활용

‘ㅅ’ 불규칙 활용의 학습지도안에서는 ‘낫다’와 ‘잇다’를 가지고 만들어보려고 한다. ‘낫다’는 서로 간에 안부를 물을 때도 사용되고 아픈 친구를 위로할 때도 사용되는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잇다’는 3장의 오류율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다. 이런 이유로 두 단어를 사용하여 학습지도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표39>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지도안

단계	수업 내용	비고
도입	수업 내용 도입하기 전에 학습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먼저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대화를 통하여 ‘ㄷ’ 불규칙 활용을 관련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대화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ㄷ’ 불규칙 용언을 사용하여 학습자를 학습 내용으로 이끈다.  교사: 요즘 독감이 유행이에요.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 나왔어요.	PPT로 예문을 제시하기  ‘나았어요’ 느리게 읽기

	<p>A씨는 감기가 좀 어때요?  A: 오늘은 기침도 안하고 나았어요.  교사: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빨리 낫도록 약을 먹어야 해요.</p> <p>위와 같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불규칙 용언 ‘낫다’가 어미와 결합하면 변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낫다’가 나오는 부분을 느리게 읽거나 반복해서 읽으면서 학생들이 불규칙 용언 ‘낫다’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p>	
<p>제시</p>	<p>제시 단계에 해당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먼저 제시해야 하고 변하는 형태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의미를 제시할 때 초급 학습자를 고려해서 쉬운 단어로 의미를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p> <p>1) 의미 제시  ‘ㅅ’ 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받침이 ‘ㅅ’인 용언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어간의 ‘ㅅ’이 완전히 탈락해진다.</p> <p>2) 형태 제시: V, adj, + -아/어, -았/었, -(으)니까</p> <p>*낫다[낫따]</p> <p>자음 앞에: 낫고[낫꼬], 낫지[낫찌]</p> <p>모음 앞에: 나아[나아], 나았다[나알따], 나오니까[나으니까]</p> <p>(다만, ‘ㅅ’ 받침으로 끝난다고 해서 모두 ‘ㅅ’ 불규칙 용언인 것은 아니다.)</p> <p>가) 감기는 좀 어때요? 아직도 낫지 않았어요?  나) 푹 쉬어서 다 나았어요.</p> <p>위의 예시처럼 ‘ㅅ’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제시할 때 규칙 활용을 포함하는 예문을 보여주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차이를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p>	<p>형태 변화되는 부분이 다른 색 갈로 표시하고 발음과 작성할 때 차이점도 지적하기</p>
<p>연습</p>	<p>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지식을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과 유의미적인 연습 활용을 한다.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이해하기를 파악할 수 있</p>	

다.

1) 반복 연습

기계적인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더 많은 용언을 가지고 다양한 어미와 결합해서 불규칙 용언의 활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 문제를 제공하여 준다.

	+ 자음어미				+모음어미			
	-다	-고	-지	-는	-아/어	-으면	-을	-은
낮다		낮			나아			
짓다			짓			지 으 면		
있다				있				이 은

2) 유의미적 연습

학습자들이 불규칙 용언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대화문을 제시하여 준다.

예) 다음에 용언의 알맞은 형태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낮다

- 가) 바지보다 치마가 더 \_\_\_\_\_(낮다/-(-으)ㄴ 것 같아요)
- 나) 감기가 다 \_\_\_\_\_(낮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 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_\_\_(낮다/지) 않아?

1. 피난민들이 줄을 \_ \_.(있다)고 있다.
2. 끊어진 줄을----(있다)어서 사용한다.
3. 그는 그녀의 노래를----(있다)어 부른다.
4. 새로 집을 \_ \_ \_.(짓다)고 싶다.
5. 내 이름은 아버지가----(짓다)어 주셨다.
6. 감기가----(낮다)으면 여행을 갈 것이다.
7. 어제보다----(낮다)은 내일을 꿈꾼다.
8. 이 옷이 저 옷보다----(낮다)지만, 비싸다.
9. 맛있는 밥을 \_ \_ \_.(짓다)어서 엄마랑 먹는다.
10. 그는 아버지의 꿈을---(있다)어서 가수가 되었다.

보기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두 사람 짝을 하고 대화를 진행하게 한다.<sup>11)</sup>



‘ㅅ’ 불규칙 활용 의 경우 어휘 수가 ‘ㅂ’ 불규칙 활용‘이나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보다 상당히 적는다. 그리고 ‘ㅅ’ 불규칙 활용 용언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따로 모아서 암기를 시키거나, 해당 용언을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습 방법에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이해를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어에는 불규칙한 활용과 같은 형태변화가 일어나는 음운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로서는 이 부분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불규칙 활용인 용언은 형태의 변화와 함께 발음할 때 유음화나 비음화 등의 변화도 일어난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음규칙에도 차이가 있어 이러한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불규칙 활용 용언의 발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는 ‘ㅅ’ 불규칙 활용 어휘를 ‘ㄷ’ 불규칙 활용과 ‘ㅂ’ 불규칙 활용 뒤에 두고 가르치고 있다. 조사하기 전에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ㅅ’ 불규칙 활용 단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사결과 90% 이상의 피험자가 이 세 가지 불규칙 활용 유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ㅅ’ 불규칙 활용을 꼽았다.

‘ㄷ, ㅂ, ㅅ’ 받침의 용언 중에는 동형이의어가 존재한다. 동형이의어는 많지 않지만,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인 ‘묻다(問)’와 사용빈도가 낮은 ‘묻다(蓋)’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구분하기 힘든 점도 있고, 또 어떤 단어는 규칙 활용을 하고 어떤 단어는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어 정확한 표현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또한, 이 세 가지 유형의 불규칙 활용 용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 많아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도 비교적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11) 그림 출처: <비타민 한국어> 2

### 2.2.3. ‘ㄷ’ 불규칙 활용

‘ㄷ’ 불규칙 활용의 학습지도안에는 ‘듣다’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듣다’는 ‘ㄷ’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서 모든 교재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학습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표40> ‘ㄷ’ 불규칙 활용 학습지도안

단계	수업 내용	비고
도입	<p>수업 내용 도입하기 전에 학습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먼저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대화를 통하여 ‘ㄷ’ 불규칙 활용을 관련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질문과 대화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ㄷ’ 불규칙 용언을 사용하여 학습자를 학습 내용으로 이끈다.</p> <p>예)  교사: 요즘은 비가 자주 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노래를 들어요.  A씨 무슨 노래 좋아해요?  A: 나는 팝송을 좋아해요.  교사: 팝송은 언제 들어요?  A: 저녁에 자기 전에 들어요.  교사: B씨는 무슨 노래 좋아해요?  B: 나는 중국 노래 들어요.  교사: 한국 노래는 안 들어요?  B: 한국 노래는 아직 어려워서 안 들어요.</p> <p>위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불규칙 용언 ‘듣다’가 어미와 결합하면 변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듣다’가 나오는 부분을 느리게 읽거나 반복해서 읽으면서 학생들이 불규칙 용언 ‘듣다’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p>	PPT로 예문을 제시하기
제시	<p>제시 단계에 해당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먼저 제시해야 하고 변화되는 형태도 제시해야 한다.</p> <p>1) 의미 제시: ‘ㄷ’ 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받침이 ‘ㄷ’인 용언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어간의 ‘ㄷ’이 ‘ㄹ’로 변한다.</p>	형태 변화되는 부분이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발음과 작성할 때 차이점도 지적하기

	<p>2) 형태 제시: V, adj, + -아/어, -았/었, -(으)니까</p> <p>교사: 노래를 ‘들어요’는 ‘듣다’기 기본형이에요  ‘듣다’의 어간 ‘듣-’은 뒤에 오는 어미가 모음일 때와 자음일 때 받침의 ‘ㄷ’이 소리가 달라져요.</p> <p>*듣다  자음 앞에: 듣고[드꼬], 듣지[드찌]  모음 앞에: 들어요[드려요], 들었다[드런따], 들으니까[드르니까]</p> <p>교사: 여러분 ‘듣다’의 받침 ‘ㄷ’이 자음 앞에서와 모음 앞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것이 이해되나요?  학생: 네  교사: 나는 음악을 ‘듣고’ or ‘드꼬’ 어떻게 쓰는 것이 맞아요?  학생: ‘듣고’로 쓰는 것이 맞아요.  교사: 그래요, ‘듣고’로 쓰고 ‘드꼬’로 발음해야 해요.  그럼 ‘듣지’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발음해요?  학생: ‘듣지’로 쓰고, ‘드찌’로 발음해요.</p> <p>학생에게 그림 카드를 제시하여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형을 익히게 한다.</p> <p>교사: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 중에 남자가 뭐해요?  학생: 음악을 들어요  교사: 맞아요, 음악을 들어요. 선생님도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은요?</p> <p>위의 예시처럼 ‘ㄷ’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제시할 때 규칙 활용을 포함하는 예문을 보여주면서 학습자들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차이를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p>	
연습	<p>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지식을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과 유의미적인 연습 활용을 한다.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이해하지를 파악할 수 있다.</p> <p>1) 반복 연습  기계적인 단순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더 많은 용언을 가지고 다양한 어미와 결합해서 불규칙 용언의 활용 연습을 할</p>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 문제를 제공한다.

	+ 자음어미				+모음어미			
	-다	-고	-지	-는	-아/어	-으면	-을	-은
듣다		듣			들			
걸다			걸			걸		
묻다 (問)				묻				물

2) 유의미적 연습

학습자들이 불규칙 용언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대화문을 제시해준다.

예) 다음에 용언의 알맞은 형태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듣다  
가) 선생님의 말을 잘 ----.
2. 묻다  
나)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는 선생님의 말씀을 - -(듣다)고 있다.</li> <li>2. 자세한 내용을 잘 ----(듣다)니?</li> <li>3. ----(듣다)어도 들리지 않는다.</li> <li>4. ----(묻다, 問)고 싶은 문제가 있다.</li> <li>5. 철수한테 ----(묻다,問)니?</li> <li>6. 길을 잘 몰라서 늘 사람들에게 ----(묻다,問)어야 한다.</li> <li>7. 그는 걸음 ----(걸다)다가 넘어졌다.</li> <li>8. 어린애가 이미 ----(걸다)(을) 수 있게 되었다.</li> <li>9. 그는 앞으로 ----(걸다)어 나아갔다.</li> <li>10. 길을 --- (묻다)어도 이해가 안 된다.</li> </ol>
---

보기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두 사람 짝을 하고 대화를 진행하게 한다.



‘ㄷ’ 불규칙 활용은 ‘ㅂ, ㅅ’ 불규칙 활용과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 즉 용언의 어간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연결되면 ‘ㄹ’로 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듣다’가 ‘들어, 들으니’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ㄷ’ 받침의 용언들이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을 따로 선별해서 예문을 통해 연습을 시키고 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묻다(問)’는 규칙 활용을 하는 ‘묻다(蓋)’와 동형이의어이다. 학습자들이 이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제시하여 이 두 유형의 어휘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상의 조사결과와 학습지도안 등을 종합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비교 설명: 먼저, 한국어 동사 활용 규칙과 불규칙 활용의 차이를 설명한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사 활용 규칙을 비교하면서,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예시 제공: 학습자들에게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이 적용된 동사의 예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덥다’의 불규칙 활용인 ‘덥고’와 ‘더워요’를 보여주며, 어떻게 어간이 변하는지 설명한다.

3) 불규칙 활용 규칙 정리: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한 규칙을 정리하여 학

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4) 문장 활용 실습: 학습자들에게 실제 문장을 활용하여 불규칙 활용을 연습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낮다'의 경우 '나아요'나 '낮고'와 같은 불규칙 활용 형태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말하는 연습을 시킨다.

5) 문법 연습 문제: 학습자들에게 불규칙 활용에 관한 문법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불규칙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대화와 역할 연습: 학습자들끼리의 대화나 역할 연습을 통해 불규칙 활용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상황을 만들어 불규칙 활용 형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ㅂ, ㅅ, ㄷ’ 불규칙 용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추출하였고, ‘ㅂ, ㅅ, ㄷ’ 불규칙 용언의 다양한 불규칙적인 활용 형태에 대한 사용 양상과 오류가 나타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 지도 방안을 제안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살피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불규칙 활용에 대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논문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논의의 전개하기 위해 오류와 불규칙 활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불규칙 활용 중에서 ‘ㅂ, ㅅ, ㄷ’ 불규칙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피험자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구분하여 설문지조사 방법으로 발음 오류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ㅂ’ 불규칙 활용에서는 ‘입다’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고, ‘찢다’와 ‘외롭다’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ㄷ’ 불규칙 활용의 경우 ‘받다’는 초급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는 모든 대상자에서 오류가 보이지 않았으나, ‘묻다(蓋)’와 ‘쏟다’에서는 모든 단계의 학습자들에서 오류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ㅅ’ 불규칙 활용에서는 ‘웃다’와 ‘벗다’의 경우 초급부터 고급까지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의 단어들에서는 모든 단계의 학습자들에서 높은 오류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와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의 상관성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습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습자들에 비해 발음 오류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 외 한국어 능력 단계와 발음 오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음과 아르바이트 활동이 발음 오류 교정에 긍정적인 변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둘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적어 조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봉국(2021), (한)국어교육에서의 불규칙활용의 수용 문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강희숙(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연구>,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문학회, 249-276.
- 김경희(201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발음 오류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정남(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용언 활용의 유형>, 『언어와 언어학』 45,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7-58.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143.
- 김준희(2008),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태경(2017), <비형식적 제2언어 학습에 나타난 한국어 용언 활용 오류>, 『언어연구』32, 한국 현대 언어 학회, 691-711.
- 김태경·백경미(2015), <중국인 한국어학습자의 음운규칙 적용 양상 연구>,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117-151.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성우 외(2011),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마수(2020),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불규칙 활용 오류 분석 : KFL 환경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선우(2005), <불규칙 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교육』 30, 청람어문교육학회, 223-249.
- 박솔지(2014),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불규칙 활용 용언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31.
- 백경미(2019), <한국어 용언 활용 규칙의 교재 기술 방안 연구>, 영주어문학회

- 배주채(2010), <국어사전 용언활용표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문화』 52,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23-52.
- 백방(201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형태 교육방안 :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해인(2020), <한국어교육 문법 연구의 연구 동향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신진우(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음(화) 오류 유형 연구>, 경인교육대학  
석사학위 논문.
- 안미애·이미향(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인식 양상 연구>,  
『어문론총』 70, 한국문학언어학회, 33-64.
- 안유진, 박새미, 김태경(2017), <한국어 교육을 위한 용언 활용 규칙의 기술 방식  
고찰>, 『국어교육』157, 한국어교육학회, 375-409.
- 양수림(202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학습 전략 연구>, 『인문사회21』  
12,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61-2074.
- 오두은(1996), <오류분석을 통한 쓰기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 왕비염(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교육 방안: ‘ㄷ, ㅂ,  
ㅅ’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요시모토 하지메나카지마 히토시(2011), 「불규칙활용에 대한 재고찰」, 학술대회  
논문집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유천(2014),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용언 활용의 교육 방안 : - ‘ㅂ’,  
‘ㄷ’, ‘ㅅ’, ‘르’ 어간 발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  
문.
- 이건희(2019),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말뭉치에 나타난 용언의 불규칙 오류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76, 이중언어학회, 57-81.
- 이대규(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불규칙 동사의 교육 방법, 이중언어학, 제17권,  
이중언어학회
- 이병선(1965), 『용언활용(用言活用)에서의 말음모음(末音母音)의 탈락 현상고(脫落  
現象考)』 28, 국어국문학회, 67-80.

- 이진경(2016), <한국어 불규칙용언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은희(2009), <한국어 교육의 문법 기술 방식 고찰: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41권, 이중언어학회
- 이정민(2008),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불규칙 용언 활용의 교재 구성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정희,김중섭(2005).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류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29, 이중언어학회.
- 이진호(2020),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찬영(2020),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용언 활용 오류 분석 연구>, 『언어와 문화』 1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9-134.
- 임현열(2022), <ㄴ 불규칙 활용의 다차원>, 『현대문법연구』 113, 현대문법학회, 103-119.
- 조남민(2002),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불규칙 용언에 관한 분석>,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281-308.
- 조민하(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오류에 대한 음운·음성학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6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93-128.
- 전지은(202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대치 오류 양상에 대한 연구>, 『Culture and Convergence』 43, 한국문화와융합학회, 93-112.
- 정주리(2018), <조사 사용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 4,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47-77.
- 정효주·김영주(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 발음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165-187.
- 조성민(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맞춤법 오류 분석 및 교수 방안 :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철현 외(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 주경희(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언어 오류 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하신영(202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언어 오류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孔晴, 崔娟华 (2019), <中国留学生留韩动机研究>, 大连民族大学.

李明凤 (人文论坛), 『韩语音变现象总结及分析』, 中华女子学院山东分院.

杨薇 (2011), <中国学生在韩语学习过程中的易错发音分析>, 辽宁现代服务职业技术学院.

张琳 (2020), 『浅谈韩语实际发音中的音韵现象』, 韩国釜山大学.

Corder, S. P.(1974), Error Analysis and Remedial Teaching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교재분석 자료>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2022.06), 『고려대 한국어 1, 2 영어판』,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국립국어원(2022.09), 『세종한국어 1A, 2A 어휘 표현과 문법』, 공앤박.

조정순, 전하나, 류정민, 정성아(2017.09), 『비타민 한국어1,2』, 다락원.

ANADA한국어학원 (2013.09), 『新轻松学韩语：初级1』, 北京大学出版社.

韩梅, 孙玉慧 (2008.01), 『韩国首尔大学韩国语系列教材：新版韩国语1』,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韩)李定喜, 金重燮, 赵显龙等 (2020.10), 『新标准韩国语新版』 初级2,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부록1.

### 조사하기 전에 준비

1. 'ㅂ, ㄷ, ㅅ'불규칙 활용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ㅂ 불규칙 활용---ㅂ+모음 어미/으 계열 어미->우/오

'ㅂ'으로 끝나는 일부 동사와 형용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ㅂ'이 '우'으로 바뀐다. 다만, '뚫다', '꿌다'의 경우는 'ㅂ'이 '오'로 바뀐다.

춡다 + 어요 -> 추우어요 -> 추워요.

어렵다 + 으니까 -> 어려워니까

#### 2) ㄷ 불규칙 활용: ㄷ+모음 어미/으 계열 어미->ㄹ

'ㄷ'으로 끝나는 몇몇 동사와 형용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ㄷ'이 'ㄹ'로 바뀐다.

듣 + 어요 -> 들어요.

걸 + 었어요 -> 걸었어요

#### 3) ㅅ 불규칙 활용: ㅅ+모음 어미/으 계열 어미-> ㅅ 탈락

'ㅅ'으로 끝나는 몇몇 동사와 형용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ㅅ'이 탈락된다.

잇다 + 어요 -> 이어요

붓다 + 어서 -> 부어서

2. 설문 조사하기 전에 불규칙의 형태변화에 대한 연습

1)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sup>12)</sup>

‘ㅂ’ 불규칙 활용 및 규칙 활용		-을 거예요?	-지요?	-아/어서	-(으)니까
	가볍다	가벼울 거예요	가볍지요?	가벼워서	가벼우니까
	귀엽다		귀엽지요?		
	두껍다				
	무겁다			무거워서	
	미끄럽다				
	새롭다		새롭지요?		
	시끄럽다				
	아름답다				아름다우니까
	즐겁다				
	춡다	추울 거예요			
	쭙다				
	뽀다(규칙)				
	잡다(규칙)			잡아서	
	좁다(규칙)	좁을 거예요			
	짧다(규칙)				

아래의 예와 같이 문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 좋은 일이 있어요? \_\_\_\_\_(즐겁다)아/어 보여요.  
 -> 좋은 일이 있어요? 즐거워 보여요.

빈칸 채우기	뚱다	가) 철수는 친구를 _____(뚱다)는 것을 좋아해요.
	쉽다	나) 어제 숙제가 너무 _____(쉽다)았어요/었어요.
	춡다	다) 제주도의 겨울은 _____(춡다)지 않아요.

12) 왕비염(2014)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교육 방안>을 참조하였다. 아래 표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하였다.

2)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ㅅ’ 불규칙 활용 및 규칙 활용		-을 거예요?	-지요?	-아/어서	-(으)니까
	낮다	나을 거예요	낮지요?	나아서	나으니까
	붓다				
	짓다		짓지요?		
	씻다(규칙)			씻아서	
	웃다(규칙)	웃을 거예요			

아래의 예와 같이 문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 새집을 -----(짓다)으면 이사 갑니다. -> 새집을 <u>지으면</u> 이사 갑니다.		
빈칸 채우기	붓다	가) 어제 울어서 오늘 아침에 눈이-----( <u>붓다</u> )어요/아요.
	씻다	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u>씻다</u> )고 나오세요.
	낮다	다) 약을 잘 챙겨 먹어서 병이 이제 다-----( <u>낮다</u> )았어요/였어요.

3)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ㄷ’ 불규칙 활용 및 규칙 활용		-을 거예요?	-지요?	-아/어서	-(으)니까
	걷다	걸을 거예요	걸지요?	걸어서	걸으니까
	(질문을) 묻다	물을 거예요			
	듣다		듣지요?		
	받다(규칙)				
	달다(규칙)			달아서	

아래의 예와 같이 문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_____ (듣다)어요 ->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u>들어</u> 요.		
빈칸 채우기	걷다	가) 집에 가까워서 학교에_____ (걷다)어가요.
	받다	나)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을_____ (받다)(으)세요!
	묻다	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_____ (묻다)어 봐요.

## 부록 2.

### 설문조사 질문지

#### ‘ㅂ, ㅅ, ㄷ’ 불규칙 활용에 대한 조사

한국어 특유의 불규칙한 활용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에서 결정한다. 불규칙 활용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ㅂ, ㅅ, ㄷ'은 그 중 어휘량이 가장 많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유형이다. 여러분이 사실대로 조사를 완료하여 실제 중국인 유학생의 이 부분에서의 잘못된 상황을 반영하기 바랍니다.(이 조사는 논문 참고만)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능력 등급: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 <ㅂ 규칙 활용 / 불규칙 활용>

1. 공연할 때 무슨 옷을 \_\_\_\_\_(입다)아/어야 해요?
2. 학생들이 교복을 \_\_\_\_\_(입다)고 학교에 가요.
3. 나는 치마를 \_\_\_\_\_(입다)는 것을 싫다.
4. 양복을 \_\_\_\_\_(입다)으니 뭔가 불편해요.
5. 고양이가 쥐를 \_\_\_\_\_(잡다)아/어 버렸다.
6. 기획을 \_\_\_\_\_(잡다)지 못해서 일자리를 놓쳤습니다.
7. 어부는 물고기를 \_\_\_\_\_(잡다)는 사람입니다.
8.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있는 손잡이를 꼭 \_\_\_\_\_(잡다)으세요.
9. 책에서 좋은 문장을 \_\_\_\_\_(뽑다)아/어서 인용했어요.
10. 우리는 뛰어난 인재를 \_\_\_\_\_(뽑다)기 위해 그 선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11. 대통령을 \_\_\_\_\_(뽑다)는 선거를 치르다.
12. 본 전공은 9명의 대학원생을 \_\_\_\_\_(뽑다)을 예정입니다.
13. 체하지 않게 밥을 꼭꼭 \_\_\_\_\_(씹다)으세요.

14. 그녀의 입은 항상 뭔가를 \_\_\_\_\_(씹다)고 있다.
15. 늙어서 \_\_\_\_\_(씹다)는 힘도 없어졌다.
16. 음식을 잘 \_\_\_\_\_(씹다)아/어서 삼켜야 소화가 잘 된다.
17. \_\_\_\_\_(춡다)아/어서 몸이 떨려요.
18. 조금 \_\_\_\_\_(춡다)지만 참을 수 있어요.
19. 밖에 \_\_\_\_\_(춡다)으니까 많이 입으세요.
20. \_\_\_\_\_(가깝다)아/어서 걸어가도 돼요.
21. 집과 회사는 \_\_\_\_\_(가깝다)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22. 산이 \_\_\_\_\_(가깝다)으니 집에 벌레가 많다.
23. \_\_\_\_\_(돕다)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_\_\_\_\_(돕다)고 산다.
25. 이 약은 소화를 \_\_\_\_\_(돕다)는 데 효과가 있다.
26. 마을 사람들이 서로 \_\_\_\_\_(돕다)으니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27. 고기를 \_\_\_\_\_(굽다)아/어서 먹어요.
28. 저는 잘 먹기만 하는데 고기를 잘 \_\_\_\_\_(굽다)지는 못해요.
29. 갈비를 \_\_\_\_\_(굽다)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30. 그 식당에서는 고기를 \_\_\_\_\_(굽다)을/르 때 숯불을 사용한다.

<스 규칙 활용 / 불규칙 활용>

31. 물로 깨끗하게 \_\_\_\_\_(씻다)어/어야 돼.
32. \_\_\_\_\_(씻다)지도 않고 바로 나왔어요.
33.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_\_\_\_\_(씻다)는 것도 감기 예방의 한 방법이다.
34. 여름에 찬물로 얼굴을 \_\_\_\_\_(씻다)으면 아주 시원하다.
35. 옷을 \_\_\_\_\_(벗다)어/어 옷걸이에 걸었다.
36. 신발을 \_\_\_\_\_(벗다)고 나서 입장해 주십시오.
37. 모자를 \_\_\_\_\_(벗다)는 게 더 나아요?
38. 안경을 \_\_\_\_\_(벗다)으니 또렷하게 보이지 못한다.
39. 그만 좀 \_\_\_\_\_(웃다)어/어라.

40. 그는 낯선 사람을 보면 늘 \_\_\_\_\_(웃다)기만 한다.
41. 그녀의 \_\_\_\_\_(웃다)는 얼굴은 참 곱다.
42. 그녀는 환하게 \_\_\_\_\_(웃다)으면서 입구에 서 있다.
43. 안 \_\_\_\_\_(빋다)어/어 주면 머리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44. 아침에 너무 바빠서, 머리도 \_\_\_\_\_(빋다)지 못했다.
45. 머리를 요즘 \_\_\_\_\_(빋다)르/을 때마다 완전 많이 빠지더라.
46. 불이 꺼지고 \_\_\_\_\_(잇다)어서 영화가 시작되었다.
47. 너무 슬퍼서 말을 \_\_\_\_\_(잇다)지 못한다.
48. 섬과 육지를 \_\_\_\_\_(잇다)는 다리가 건설되었다.
49. 여기에 있는 선들을 다 \_\_\_\_\_(잇다)으라고?
50. 밤을 새웠더니 눈이 \_\_\_\_\_(붓다)았/었어요.
51. 나는 목이 \_\_\_\_\_(붓다)고 열이 나서 감기약을 먹었다.
52. 요즘 유행하는 감기는 목이 많이 \_\_\_\_\_(붓다)는 목감기입니다.
53. 내일 얼굴이 \_\_\_\_\_(붓다)으면 안 되는데...
54. 그렇게 \_\_\_\_\_(짓다)아/어서 말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오.
55. 아기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이름을 \_\_\_\_\_(짓다)지 못했어.
56. 이 땅은 아파트를 \_\_\_\_\_(짓다)는 데 쓴다.
57. 죄를 \_\_\_\_\_(짓다)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다.
58. 나 이제 괜찮아, 병이 이미 다 \_\_\_\_\_(낫다)았/였어.
59. 오랜 기간 치료했지만 \_\_\_\_\_(낫다)지 않다.
60. 빨리 \_\_\_\_\_(낫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61. 아이의 병이 \_\_\_\_\_(낫다)으니 마음속 큰 근심이 사라졌다.

<D 규칙 활용 / 불규칙 활용>

62. 내가 집으로 보낸 선물은 잘 \_\_\_\_\_(받다)았/였어?
63. 학교는 위생검사를 \_\_\_\_\_(받다)기 때문에 하루 휴강한다.
64. 네가 어떤 선물을 하든 \_\_\_\_\_(받다)는 사람은 기뻐할 거야.
65. 발표자는 곤란한 질문을 \_\_\_\_\_(받다)으면 적당한 핑계를 대고 대답을 했습니

다.

66. 날씨가 쌀쌀하네요, 창문 좀 \_\_\_\_\_(닫다)아줄래요?
67. 학교의 도서관은 방학 때도 문을 \_\_\_\_\_(닫다)지 않는다.
68. 바람이 세니까 창문을 \_\_\_\_\_(닫다)는 게 좋아요.
69. 추운데 문 좀 \_\_\_\_\_(닫다)버/읍시다.
70. 이번에 진짜라니까 한번만 \_\_\_\_\_(민다)어/어줘.
71. 저를 \_\_\_\_\_(민다)고 따라 오세요.
72. 의사의 말을 \_\_\_\_\_(민다)을 수 있지.
73. 그 말을 \_\_\_\_\_(민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74. 손에 풀이 \_\_\_\_\_(묻다)어/어서 찢득찢득해요.
75. 옷에 기름이 \_\_\_\_\_(묻다)지 않도록 조심해요.
76. 그 나무 밑에 \_\_\_\_\_(묻다)는 게 어때?
77. 커피는 옷에 \_\_\_\_\_(묻다)으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78. 제 말을 좀 \_\_\_\_\_(듣다)어/어주세요.
79.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_\_\_\_\_(듣다)지 마라.
80. 그는 말을 잘 \_\_\_\_\_(듣다)는 아이이다.
81. 그 노래를 \_\_\_\_\_(듣다)르/을 때마다 슬퍼져.
82. 학교에 가까워서 \_\_\_\_\_(걷다)어가면 5분만 걸려요.
83. 하루 종일 \_\_\_\_\_(걷다)고 나니 발이 부어졌다.
84. 꽃길을 \_\_\_\_\_(걷다)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85. 그가 \_\_\_\_\_(걷다)는 자세를 보면 군인 같아.
86.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_\_\_\_\_(묻다)어봐요.
87. 나이를 \_\_\_\_\_(묻다)지 않을게요.
88. 갑자기 \_\_\_\_\_(묻다)으니 오히려 생각이 나지 않는다.
89. 늦게라도 \_\_\_\_\_(깨달다)아서 정말 다행이다.
90. 나쁜 길로 빠졌음에도 \_\_\_\_\_(깨달다)지 못한다.
91. 사람은 깨달고 나서 노력하는 것인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_\_\_\_\_(깨달다)는 것인가요?
92. 바보라도 \_\_\_\_\_(깨달다)르/을 때가 있다.



### 부록 3.

#### 표 목차

- <표1>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한국어 사용능력(단위, 명)
- <표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과 아르바이트 참가 여부
- <표3> 조사 대상자 60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 <표4> 한국어 사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 <표5>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 <표6> 불규칙 활용의 형태 변화표
- <표7> 조사 대상 불규칙 활용 용언
- <표8> 설문조사 질문지 구성 예시
- <표9> 오류 발생의 원인(강희숙, 2009:251)
- <표10> 받침이 ‘ㄴ, ㄷ, ㄹ’인 용언들
- <표11> ‘ㄴ’ 불규칙 활용 사례
- <표12> ‘ㄷ’ 불규칙 활용 사례
- <표13> ‘ㄹ’ 불규칙 활용 사례
- <표14> 한국 교재에서 ‘ㄴ, ㄷ, ㄹ’ 불규칙 활용에서 많이 인용되는 어휘
- <표15> 중국 교재에서 ‘ㄴ, ㄷ, ㄹ’ 불규칙 활용에서 많이 인용되는 어휘
- <표16>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불규칙 활용 설명 비교 분석
- <표17> 초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단위: %)
- <표18> 중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단위: %)
- <표19> 고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 (단위: %)
- <표20> ‘ㄴ’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
- <표21> ‘ㄴ’ 의 복수 기저형-‘ㄷ다’ 예시로
- <표22> ‘ㄴ’ 불규칙 활용 오류 양상 결과
- <표23> ‘ㄴ’ 불규칙 활용 어휘별 오류율(단위:%)
- <표24> ‘ㄴ’ 불규칙 활용의 어휘별 오류율(단위:명)
- <표25> ‘ㄴ’ 불규칙 활용의 쓰기와 발음 오류 양상(단위: 명)
- <표26> ‘ㄷ’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
- <표27> ‘ㄷ’ 의 복수 기저형-‘ㄷ다’ 예시로

- <표28> ‘ㅅ’ 불규칙 용언 오류 양상
- <표29> ‘ㅅ’ 말음 용언 어휘별 오류율(단위:%)
- <표30> ‘ㅅ’ 말음 용언의 등급별 오류율(단위:%)
- <표31> ‘ㅅ’ 불규칙 활용의 쓰기와 발음 오류 양상(단위: 명)
- <표32> ‘ㄷ’ 불규칙 활용의 활용 예시
- <표33> ‘ㄷ’ 의 복수 기저형-‘듣다’ 예시로
- <표34> ‘ㄷ’ 용언 어휘별 나오는 오류 양상
- <표35> ‘ㄷ’ 불규칙 활용 등급별 오류 양상(단위:명)
- <표36> ‘ㄷ’ 불규칙 활용의 쓰기와 발음 오류 양상(단위: 명)
- <표37> 중·고급 학습자의 아르바이트 여부에 따른 오류 양상(단위: 명)
- <표38>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해 지도안
- <표39> ‘ㅅ’ 불규칙 활용에 대해 지도안
- <표40> ‘ㄷ’ 불규칙 활용 학습지도안